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월 27일)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정상회담에 南北교류 급물살
불교계 사업재개 준비 만반

남북 분야별 회담 기대, 각 단체 사업 잰걸음

윤호섭 · 박진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이후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4월 말 예정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비롯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까지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불교계도 최근 몇 년간 단절된 남북불교교류의 불씨를 분주히 사업계획을 세우는 모양새다.

합동법회 · 사찰보수 등 교류 기대

먼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3월 7일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민추본은 논평을 통해 "대북특사단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정상간 핫라인 개설,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의사표명 확인 등 내용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추본은 "이번 방북을 통해 이룬 결과물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며 △정부당국, 정치권 · 사회 구성원 모두 대승적 차원의 합심 △미국 등 주변국의 적극 호응 및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 위한 실천조치 마련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 재개 위한 당국차원의 보장 · 지원 시행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추본은 남북관계 해빙 무드에 힘입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남북불교 공동행사와 남북불교문화재 교류협력사업에 방점을 찍고 △부처님오신날 남북 교차방문 △신계사 11주년 복원기념 남북합동법회 봉행 △신계사 정밀진단 및 보수공사 △개성지역 사지 발굴 및 복원 위한 기초조사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남북불교대표단의 서울-평양 교차방문이 눈길을 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대표단이 북한 사찰에 방문해 봉축 등을 달고 봉축점안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에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강산 신계사 일부에 기와굴곡 현상 등 문제가 확인돼 신계사 보수를 비롯해 개성 지역 사지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복 73주년 8.15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서산대사 남북합동다례재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 등을 진행한다.

2005년 의천 대각국사의 주석처였던 개성 영통사를 복원한 **천태종**은 전각을 비롯한 도량 보수를 위한 기초조사를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 조선불교도연맹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진 못했지만 영통사가 올해 복원 13주년인데다 최근 몇 년간 북한과 교류가 드물어 영통사 전반에 걸친 현황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천태종 대북지원단체인 나누며하나 되기 신면관 사무처장은 "영통사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원 후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단청을 비롯해 전각 전반에 걸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이외에도 가을에 봉행되는 의천 대각국사 열반다례재를 영통사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추본 환영논평 비롯해
남북 공동행사 추진 나서
천태종 '영통사 보수 조사'
108순례 北 평화 불 봉안

범종단협의체도 계획 구성
전문가들 "종교역할 중요"
지속가능 사업 중점 둬야

2017년 11월 첫 순례를 시작한 **108평화순례단**(단장 선묵 혜자)은 4월 14일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의 성화봉송대에 평화의불을 점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8평화순례단은 북한 사찰 5곳에 평화의불을 봉안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범종단기구도 앞다퉈 사업 논의

국내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최근 총회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위원회에는 각 종단별 2인과 실무자 등을 포함해 약 2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KCRP는 북측과 논의를 거쳐 3.1운동 100주년 공동사업을 확정하고, 대표단 평양방북을 재차 추진할 계획이다. KCRP 대표단 방북이 이뤄진다면 2015년 11월 조선종교인협의회와 금강산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 이후 3년 만에 종교계 대표 만남이 성사된다.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조직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보건의료 중심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과 평양 의학과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대변화에 따른 북측 제안사업에 귀 기울일 방침이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북측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새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발전된 사업을 협의하는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대북교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종교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민간보다는 정부중심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까지 교류가 확대된다면 우선순위는 종교계가 될 것이다. 종교가 가장 비정치적이면서도 대북제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불교계는 북한의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중심의 교류가 주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구본사와 북한 전통사찰 연계 등 지속적 교류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불교계가 초석을 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무원 스님은 불교계가 북측과의 문화불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북한에 복원한 사찰 관리나 주요인사 만남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소외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대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불교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1차적 지원과 교류를 넘어 한층 발전된 문화교류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장매가 알려온 봄소식 모진 추위를 작은 꽃잎으로 밀어내며 봄을 불러오는 매화는 봄소식의 전령이다. 양산 통도사의 홍매화도 그 전령 중 하나다. 그 이름은 '자장매'다. 통도사를 세운 자장율사의 이름에서 왔다. 지계의 상징인 자장 스님의 이름과 절개의 상징인 매화 향기가 봄을 알려온다는 것에 온갖 의미를 가져다 붙여도 좋으리라. 봄이라는 계절엔 늘 많은 모색과 다짐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잠을 깨운다는 경칩날(3.6), 통도사 영각 앞 자장매는 어김없이 봄을 피워내고 있다. 그리고 봄을 기다린 대중이 그 봄소식을 마중 나간다. 좀 더 오랫동안 그 소식 간직하고 싶어 카메라에 담아간다. 양산 통도사= 하성미 기자

사고

현대불교 홈페이지 '확' 바꿨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hyunbulnews.com)가
3월 6일부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했습니다.



변화1 기사 순환 시스템
신문에 있어서 신속한 보도는 생명입니다. 기사 노출을 빠르게 순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했습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기사들은 확연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편집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변화2 읽은 거리 노출 확대
본지의 강점인 와이드 인터뷰 'MANDALA'와 각종 연재와 오피니언 칼럼, 사설들도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을 변화했습니다.

변화3 'TWO TRACK' 편집
신속한 보도와 읽을거리, 두 가지에 부응하기 위해 'TWO TRACK' 편집 및 운영을 합니다. 상단부는 신속한 보도를 위해 활용되며, 하단부는 오래 두고 읽을 수 있는 연재와 문화 · 학술 등의 전문 기사들이 노출됩니다.

변화4 지난 기획 '한눈에'
현대불교신문 신년 · 봉축 · 창간호의 다양한 기획들을 연도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인 1수행운동 전개
신행혁신 앞장선다

포교사단 11일 기념법회서

조계종 포교사단이 조계종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 운동 실천을 위해 앞장선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수행 실천운동을 비롯해 신행일지 작성 및 발간, 채식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는 신행혁신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은 이를 위해 3월 11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포교사단 출범 18주년 기념식 및 제5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포교사단 본단 및 지역단 팀장 등 전국에서 대의원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법문, 초대 단장을 지낸 김기병 포교사의 축사, 포교 활동 공적이 뛰어난 경남지역단 이문자 포교사 등 유공자 36명과 충북지역단 염불포교1팀 등 35개 팀 등에 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포교사단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증명으로 남녀 포교사 2명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수행과 정진, 사회봉사 등 실천으로 신행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구본사 지지… 멸빈자 사면 탄력 받나

설정 스님, 본사주지회의서 종헌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10회 임시회가 3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종단 대화합'을 천명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각 교구본사에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구본사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결의하면서 멸빈자 사면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비공개로 개최된 2018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통과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구본사를 바탕으로 사면에 대한 종단적 공의를 모은 뒤 각 본사주지들이 해당교구 중앙종회의원들에게 개정안 가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총무부에 따르면 회의서는 전국 본사주지들이 총무원의 사면 의지에 대해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사면 기준과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이 같은 교구본사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설정 스님은 최근 5회가량 지역을 순회하며 본사주지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무원은 중앙종회 개원에 앞서 종헌개정안의 가결을 바라는 담화문 등의 입장 발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멸빈자 사면에 관한 여론은 교구본사뿐만 아니라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앙종회 10석을 차지하는 비구니 의원들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멸빈된 스님들에 대한 사면에 공감하며 종헌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뜻을 모았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중앙종회의원들 역시 설정 스님의 의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시회 앞서 사면 의지 표명
종회 내에서도 찬성여론 형성
대화합 관련 담화문도 전망
재적의원 3분의2 동의 관건

같은 날 열린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회의서도 이번만큼은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마음을 내겠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만당 · 성화 · 원경스님 등은 집행부의 대탕평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난해보다 승가화합을 향한 종단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실장 금산 스님 또한 "35대 집행부 출범 이후 멸빈자 사면 문제는 꼭 해결했으면 하는 발원 중 하나다. 몇 차례 걸쳐 개정안이 미뤄졌는데 임시회 이전에 총무원장스님이 의원스님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사면이 되더라도 최소 10년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사면위원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하려 한다. 종단 대화합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위해 각 교구가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금산 스님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멸빈된 스님은 230여 명이다. 이 중 타종단 이적과 환속한 자, 바라이죄와 재산비위 등의 이유로 멸빈된 자를 제외하면 사면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서 재적의원 3분의2인 54표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중앙종회 회기서 부칙으로 종헌의 본조항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사면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현재의 개정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현재 중앙종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은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 ·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이 교시로 사면을 당부하고,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이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3월 208회 임시회 이후 거듭 이월되면서 멸빈자 사면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조계종 포교원 뉴미디어 전법 본격 시동

뉴미디어팀 구성, 3월 26일 연찬회서 포교 방법론 논의

조계종이 뉴미디어 전법에 시동을 걸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최근 미디어팀을 구성하고 SNS 등 사회의 다양한 미디어 분석과 함께 불교계 뉴미디어 전법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현재 포교원 내 뉴미디어 담당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해 배치한 상태다. 향후 뉴미디어팀은 포교원의 미디어 대응을 비롯해 교육 등을 진행한다.

먼저 포교원은 2월 10일 포교 · 신도 · 유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뉴미디어 활용 1차 교육을 진행했다. 1차 교육에서는 박부영 불교신문 기자를 강사로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상 홍보방법 교육이 진행됐다. 포교원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향후 기존 미디어와 함께 뉴미디어 활용법까지 교계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사찰 홈페이지 현황부터 교계의 미디어 전법 현황을 먼저 파악할 계획"이라며 "불교계의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 현황과 발전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뉴미디어 전법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제75차 포교종책연찬회를 '뉴미디어 포교방법론,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로 설정하고 3월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계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 관련 전문가 10여 명을 패널로 섭외 중이다. 포교원은 연찬회서 불교계 뉴미디어 현황을 짚고 종책 개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는 방침이다.

포교원 측은 "라디오와 신문, 잡지와 전화 등 기존 전달매체 외에 디지털 단말기를 통한 양방향, 대량, 다중의 정보소통이 이뤄지는 이른바 뉴미디어 시대에 조응하는 중장기 포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며 "불교계 콘텐츠와 이에 맞는 매체 활용 등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귀종승 연령제한 확대 전망

종령개정안 입법예고, 만66세 이상도 가능해져

만6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조계종으로 귀종을 원하는 승려의 연령자격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최근 '귀종승입적에 관한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은퇴출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종승 연령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신청자격 변동에 따라 귀종승 신청 횟수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귀종승 자격은 고졸 또는 동등학력 이상인 자 또는 만66세 이상으로 교구본사주지 추천을 받은 자다. 이 중 연령 만50세 이하는 타종단 수행경력 1년 이상, 만65세 이하는 타종단 수행경력 10년, 만66세 이상은 타종단 수행경력 20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만6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현행제도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가족부양 의무가 없는 자는 동일하다. 아울러 기존 1회만 가능했던 귀종신청 횟수는 삭제됐다.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3월 21일까지이며, 의견수렴은 서면과 이메일(porea313@buddhism.or.kr), 팩스(02-720-3302)로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보시 (상) 조건없는 자비행

*보시(나눔)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선행이며 자비행입니다. 보시는 탐욕과 소유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최상의 수행입니다. 6바라밀의 첫째 덕목인 보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보시는 순수하고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보답을 기대하고, 받았으니까 주고, 내세에 복을 받으려고 보시를 한다면 그런 보시는 선행도 수행도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욕망)과 조건이 붙은 이기심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인도 중부의 고오가 강기슭에 계실 때입니다.

비야샤라는 선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보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33가지의 부정(不淨)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잘 분간하여 참된 보시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욕망을 갖고 교환식으로 보시를 하거나 은혜를 갚기 위해 보시를 하고 버려야 할 물건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부자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보시에는 공덕이 있을 수 없다. 그 것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황폐한 밭에 심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비가 와도 싹이 나올리 없다. 싹이 나왔다 해도 꽃이 안피고 열매도 안 열리는 것과 같이 부정한 보시는 결코 공덕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깨끗한 보시란 모든 생물에 대하여 자애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보시의 복덕은 시주의 육신이 없어져도 그림자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시주의 베품이 적어도 복덕은 매우 큰 것이다."

비야샤 선인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시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비야사문경(毘耶娑問經)〉 상권.

*보시의 공덕은 주는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마대사와 중국 양무제의 대화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양나라 불심천자(佛心天子) 무제(464~549)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불사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無功德)"

자기의 공덕을 은근히 내세운 양무제의 조건있는 보시는 범부의 유루보시(有漏布施)입니다. 번뇌가 붙어있는 유루보시의 업보는 생천(生天)하여 복락을 누리다가 그 복이 다하면 다시 빈곤한 중생으로 윤회합니다.

달마대사는 양무제의 불사공덕을 무루(無漏)의 자리에서 보았으므로 무공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과 같은 뜻입니다.

조건이 없어 번뇌가 없는 무루보시는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들게 합니다. 이제부터 조건없이 주는 무루보시 연습으로 주고나서 주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제목 · 보시-관계-자연 그림 · 조향숙

소유욕 내려놓는 수행
주었다는 생각 없어야
적은 나눔도 무량복덕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세계로 뻗는 템플스테이, 해외 초청 급증

외국인 참가 연 7만 명 돌파… 한국문화원 연계도

4~5개국 홍보행사 협의 비롯
伊 국제슬로푸드대회 참가 등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세계화
2020년 외국인 10만 명 목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한다. 사진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침체기를 보냈지만 템플스테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외국인 참가자가 급증해 연인원 7만 명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3월 7일 기자간담회서 발표한 2017년 템플스테이 지표에 따르면 외국인 참가자는 2016년 대비 27% 늘어난 7만910명(연인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4만6525명, 2016년 5만5787명보다 훨씬 높은 상향 곡선이다. 또한 내국인 참가자는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41만6454명으로 첫 4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문화사업단은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홍보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지난해 미국 뉴욕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실시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체험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외국인 참가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처음엔 종교적 이미지 때문에 거부감을 갖기도 하지만 행사가 끝날 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려줘 고맙다고 인사하다"고 설명했다.

외신과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호응에 따라 문화사업단은 올해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연계 홍보행사를 확대해 2020년까지 외국인 참가자 연인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총 13개국 문화원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행사를 요청해온 상태다. 다만 동시 진행이 어려워 홍콩과 캐나다, 영국 등 4~5개국 한국문화원과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여행박람회서 부스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이탈리아 국제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제슬로푸드대회는 이탈리아 농림부와 피에몬테주, 토리노시가 개최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음식문화축제로 전 세계 100개국 120만 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이 행사에서 문화사업단은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지속적 특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봄 · 가을 여행주간에 맞춰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단 올해부터는 문화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하거나 지역 도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 ·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관련된 홍보 VR영상을 제작하고, 유네스코 · 문화재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문화사업단은 인접 국가인 중화권 대상 템플스테이 여행코스 홍보에도 주력한다. 우선 3월과 4월 대만 · 싱가포르 대상으로 마곡사 · 화엄사 · 석종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사업단은 2016년 마케팅팀을 신설, 여행업계와 연계한 여행상품 7건을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템플스테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역 연계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참가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사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사업단과 일선 사찰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행자 관점의 템플스테이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조를 다져가는 중이다. 일선사찰 운영인력 교육을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문화사업단은 오는 23일 서울 진관사에서 관광종사원과 해설사, 국제포교사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관련 통역교육을 실시한다.

"미투운동, 더 낮은 곳으로 흐르길"

설정 스님, 여가부장관 예방서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문학계, 문화계, 정치계 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보다 낮은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이어지길 기원했다.

설정 스님은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우리사회의 그간 어두웠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등 의지할 데 없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며 "미투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검사지만 더 낮은 민초들의 목소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요즘 미투운동으로 인해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그만큼 충격도 크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종교계서도 응원해주시고, 피해자 지원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장관은 "그간 불교계가 사회정의와 평등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해주셨다. KTX여승무원 복직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석굴암 등 국보 · 보물 원형 기록 추진

문화재청, 120건 대상 정밀 실측 시행

수리 · 복구 · 학술 자료로 활용

국고 · 보물 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과 이를 통한 원형 기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보수 · 정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보 · 보물 지정 문화재 120건에 대한 '2018년 정밀 실측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8년 숭례문(국보 제1호) 화재 이후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밀실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밀실측은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문헌 자료를 일단 수집하고, 인문 · 자연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기초 조사와 수리 이력 등을 파악한 다음, 가설 비계(飛階)를 설치해 수작업과 3차원 입체(이하 3D) 스캔 장비를 이용한 3D 데이터를 얻어내는 작업이다. 또한, 균열 · 박락 · 이끼류 서식 등에 대비한 보존관리 현황을 포함한 도면 작업과 고증연구를 통해 문화재 복원설계도를 작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보 · 보물 지정 목조문화재 총 182건 중 176건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2016년 보물로 승격된 대구 파계사 원통전과 제주 향교 대성전이 이뤄진다. 석조문화재의 원형 기록도 지난 경주 지진 이후 긴급히 진행해 현재까지 276건의 실측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118건의 정밀 실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문화재로는 경주 석굴암을 비롯해 불국화 연화교 및 칠보교, 청운교 및 백운교,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등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까지 국보 · 보물 건조물문화재 755건에 대한 정밀실측 사업을 전부 완료할 것"이라며 "확보한 기록들은 수리와 복구, 학술 ·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한마음선원 제13회 대행장학회 수여식 개최

물질보다 마음을 전하는 의미
대학 · 고등학생 55명 장학금 수여
혜수 스님 "신도님 정성에 감사"



한마음선원은 3월 4일 안양 본원 5층 법당에서 '2018년 제13회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늘의 이 인연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스님께서 일러주신 공생, 공심, 공용, 공체의 이치인 것입니다."

미래 청년 불자들을 키워내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3월 4일 안양 본원 5층 법당에서 '2018년도 제13회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행장학회'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들을 키워 내기 위한 대행선사의 인재 불사에 대한 뜻을 실천하고자 발족한 장학재단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불교 청년회 활동을 활발히 해온 대학생과 고등학생, 경인교육대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대행장학회에서는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한 대행 선사의 뜻을 받들어 발족한 장학회이니만큼 물질적인 도움보다 자신의 역량을 잘 키워 세상의 큰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선물이자 양식을 전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불자에게 수여하는 대행장학생으로 한양대 식품영영학과 2학년 윤다민 학생 등 14명이, 한마음장학생에는 나도희(성균관대 3학년), 변지영(덕성여대 4학년) 등 대학생 13명과 장소연(경인교대 4학년) 등 13명의 경인교대생, 신목고등학교 윤서혜 학생 등 15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한 총 5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 장학금에는 신도님들의 정성이 다 함께 들어가 있다"며 "이렇게 맺은 인연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드린 만큼 학생들이 잘 회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불련, '새학기… 설렘'

16~18일 석종사 템플스테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는 3월 16~18일 충주 석종사에서 대불련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불교문화 체험하고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이후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서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포행, 임시총회, 스님과의 차담, 마음나누기, 지화연꽃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스님의 법문과 함께 대학 신입생들이 불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모집은 3월 14일까지로 참가비는 재학생 3만원, 신입생 2만원이다.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심 증장을 위한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찰에서 불교문화 체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참선수행과 국제포교의 중심사찰

대한불교조계종
三角山華溪寺

화계사 템플스테이 및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식



금번 낙성하게된 화계사 국제 선문화체험관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풍인 선불교를 익혀 실참참수를 통해 생사의 문제에 직면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코자하는 모든 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열악한 공간 사정으로 그동안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 특히 외국인 특화사찰로서 한국불교와 전통사찰의 우수한 가치 등을 숭산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어가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숭산스님의 국내외 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하던 어제를 일소하고, 보다 향상된 여건 속에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소통, 화합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화계사 대중은 이를 내외의 대중 앞에서 다짐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식을 봉행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562(2018)년 3월 17일 토요일 (음 2. 1) 12시
● 장 소 : 화계사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번길 (수유동 487)
● 전 화 : ☎ 02)902-2663

“정창원은 타임캡슐… 한·일 연구 필요”

국립문화재연구소, 7일 정창원 주제 국제학술대회

정창원, 본래 동대사 후원 창고
쇼무천왕 헌물들이 그대로 보관
동아시아 교류사 연구 중요자료
한반도 전래 유물 연관성 ‘눈길’
양국 공동 연구·전시 등 이뤄져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3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최응천 동국대 교수가 정창원의 구조와 유물 현황 등을 설명하는 모습.

일본 천왕가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정창원(正倉院) 소장 한반도 유물 현황과 연구성과 등을 확인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3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정창원을 통해 밝혀지는 백제·통일신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정창원 금속 공예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발제한 최응천 동국대 교수는 정창원 유래와 유물 현황들을 설명하고 연구 과제들을 제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정창원은 일본 나라시대 동대사 후원에 위치한 단독 창고를 의미한다. 정창원 유물의 유래는 쇼무천왕의 애장품들을 그의 왕후가 동대사에 헌납하며 비롯됐다.

이런 정창원의 유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교수는 “8세기 일본의 공예, 조각, 회화는 물론 페르시아, 인도 등 실크로드와 한반도·중국 등서 유입된 문화재들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시 문화 외교 교류사 및 불교 교리 변천사까지 아우르는 역사적 고증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원에 소장된 금속 공예품은 △불교공예품 △음식기 △무기류 △집기류 △복식구 △유희구 △악기류 등으로 분류되며, 불교공예품에는 탑완형 합자(10점)·병향료(사자진 4점·작미형 1점)·화로·금동번·석장 등 다양하다.

특히 최 교수는 최근 여러 사지에서 출토되는 백제, 통일신라 시대 문화재들과 정창원 한반도 도래 유물들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2007년 미륵사지 서탑 해체 수리과정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기에 보이는 백제 문양은 정창원 유리배 받침에 그대로 시문돼 근래 이 작품의 제작지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제시됐다”면서 “앞서 부여 왕흥사지에서 발견된 사리기 일괄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577년에 제작된 사리기라는 점에서 정창원 금속 공예 제작에 백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향후 정창원 연구 과제로 △정창원 소장 유물 조사 위한 국가 지원 및 창구 일원화 △유물의 정확한 목록화 작업 및 DB화 △일본과 공동연구 적극 시행 및 연구자 초청 △정창원 유물과 국내 보물급 유물 교환 전시 △정창원 관련 서적 출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정창원의 생동감 넘치는 유물은 실크로드를 포함한 동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대 동아시아의 타임캡슐”이라며 “한일 양국 학자들의 공동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창원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를 통해 본 신라 물품 교역(박남수, 신라사학회)’ △‘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나이토 사카에, 나라국립박물관)’ △‘정창원의 칠공(漆工) 기법(이난희, 국립민속박물관)’ △‘정창원 소장 〈화엄경론질〉과 심상(審祥)이 들여온 신라사경(히가사 이츠토, 나라박물관)’ △‘백제와 일본 정창원 소장품(신숙, 한국전통문화대)’가 각각 발표됐다.

불교복지 현황·발전상 한눈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8불교사회복지편람’ 발간



조계종이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상과 자원 파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18 불교사회복지편람’〈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편람은 2011년 이후 6년만에 발간되는 것으로 조사에 응답한 전국 163개의 불교계 사회복지 관련 법인과 920개의 불교계 사회복지 기관들의 기본 현황을 담았다.

이번 편람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우편 및 온라인, 전화 응답을 통해 실시한 불교사회복지전수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있는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상과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이 편람이 불교사회복지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석으로 널리 사용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편람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및 기관의 소재지, 연락처, 종사자현황, 시설 규모와 종류 등의 기본 현황이 담겨있으며, 2011년 발간했던 편람의 결과와 비교한 지역별·영역별 분포 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어 불교사회복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편람에 따르면 불교계법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7.4%, 경상권 37.9%가, 시설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42.7%, 경상권에 33.2%가 집중되어 있다.

불교사회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이 큰 것이 이번 편람서 드러났다.

또한 시설 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 41.6%, 영유아(어린이집 포함) 18%, 장애인 11.4% 로 나타나 불교사회복지의 대상이 노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한부모·건강가정 분야의 시설이 증가하며 다각적인 복지시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지침서로써 널리 활용되길 바라며, 전국의 법인 및 교구본사에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3-5101~2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불교 IT전문업체 ‘다나’ 불교사전 API 개발

홈페이지서 검색 기능 제공

불교계 홈페이지에서도 불교사전을 통한 용어 검색이 가능해졌다. 불교계 IT전문업체 ‘다나’(대표 최대종)는 최근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2011년 출간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을 오픈 API로 개발했다.

API는 운영체제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으로 포털과 사이트 등에서 다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네이버가 학술정보 API를 도서관 사이트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다나 최대종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불교사전 API를 사찰 홈페이지 등에 적용할 경우 홈페이지 방문객이 바로 검색창을 통해 용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자선행사 활성화’…직할교구 사업 눈길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가 지난해 화제를 모은 자선골프대회를 올해 확대개최하는 등 다양한 자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이금석)는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대 1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18신년사업을 의결했다.

먼저 직할교구신도회는 6월 20일 오후 1시 양평TPC골프클럽에서 총 140여 명이 참여하는 2018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골프대회는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본지가 후원하며 수익금은 사찰 네트워크 형성 및 성역화불사기금에 사용된다.

또 직할교구신도회는 12월 자비나눔 일일찻집을 통해 성역화불사기금을 모연키로 했다. 이밖에 포교사업으로 연 2회 복지관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8월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제8회 천진불어울림한마당에서 먹거리마당 주관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또 7월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교육을, 10월 직할교구 자원봉사자 교육, 11월 전통등강습회를 개최한다.

이금석 신도회장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5명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임명장 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산하 시설장이 신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시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수여받은 시설장은 2018년 새로 위탁운영을 시작한 △신내경로복지센터(박미정) △중림 어르신·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김미현) △팔달노인복지관(윤학수)과 시설장 변경에 따라 새롭게 부임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수안 스님) △송파노인요양센터(유의천) 등 5명이다.

설정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중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한 삶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사상을 가장 뜻있고, 알차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사회복지”라며 “열정과 정성, 불성을 갖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복지로 끌어올려 불교사회복지가 보다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설장들은 “지혜를 갖고 복덕을 펼쳐 불교사회복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형 기자



이제 선수촌 불심도 ‘진천 시대’

조계종 체육전법단과 체육인불자연합회는 3월 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1층 법당에서 법당 개원법회 및 불상 봉안식을 개최했다.〈사진 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체육전법단장 퇴휴 스님, 교정교화전법단 단장 혜원 스님 등 스님들을 비롯해 이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 조성동 국가대표 스키에어리얼팀 감독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한계를 미리 규정짓지 말고 각자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볼링 국가대표 전은희 선수는 발원문을 통해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모든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불퇴전 같은 심신과 정진의 힘으로 법당을 지키며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박종길 3대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의 이임과 문홍식 4대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Seoul SUBWAY

서울 지하철역엔 불교 문화·역사가 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대중교통 수단이다. 1호선부터 9호선, 그리고 각종 지선까지 355개의 역이 존재한다. 이들 역명들은 대부분 지역명이나 대표 시설들을 특정에 지어진 것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불교 관련 지명들도 상당수다. 서울역사편찬연구원은 최근 지하철역명의 유래와 역사를 다룬 〈지하철을 탄 서울史〉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 관련 역명을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1호선

종로3가역 탑골공원



종로3가역 5번 출구로 나오면 탑골공원으로 갈 수 있다. '탑골'은 '탑이 있는 마을'을 뜻하며, 이는 세조가 세운 '원각사 10층석탑(국보 제2호)'에서 유래가 됐다. 또한 3.1운동의 시발지였던 탑골공원에는 만해 스님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

청량리역 청량사



청량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청량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청량리는 이곳에 있는 청량사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여러 역사 기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청량사는 제법 사격이 있었던 고찰로 보인다. 실제 〈세종실록〉에는 태조의 공신들이 주상의 탄신일에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재를 열자고 의견을 모은 기록이 있다.

망월사 망월사역



망월사는 한양 사람들이 정월의 만월을 보는 사찰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라 선덕여왕 8년(639) 해호 스님이 왕실 융성을 발원하며 창건했다. 신라 월성을 바라보며 기원해 '망월'이라고 한다.

회룡사 회룡역



회룡은 '왕이 돌아왔다'는 의미다. 회룡사는 681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법성사가 시초이며,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정도전의 시기를 피해 숨은 곳이기도 하다. 1403년 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찾아 중창한 뒤 이름을 회룡사로 고쳤다.

2호선

사근사 한양대역



한양대역 주변 지역명은 사근동으로, 청계천변 모래가 쌓여진 마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근'이라는 지명은 한양대 축구장 자리에 있던 '사근사'라는 사찰에서 유래했다.

3호선

인사동·조계사 안국역



안국역에 내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인사동은 1914년 기존의 관인방(寬仁坊)과 대사동(大寺洞)을 합쳐 만든 지명이다. 대사동은 원각사에서 유래한 큰 절골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불광사 불광역



불광역과 이곳 지역명인 불광동은 불광사라는 사찰서 명칭이 유래됐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불광리로 주소화 됐으며, 해방 후인 1949년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으로 변경됐다.

진관사 구파발역



불광역서 두 역을 더 가면 구파발역이다. 이 일대를 진관동이라 하는데 이는 진관사에서 유래됐다. 진관사는 고려 현종이 즉위 전 자신을 불단 밑에 숨겨 목숨을 구해준 진관 대사를 위해 지어준 사찰이다.

신사동 새절역



새절역은 은평구 신사동(新寺洞)의 순수한 우리말인 새절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서울에만 신사동이 강남과 관악 등 3곳이 있는데, 나머지 2곳은 불교와 관련이 없는 지명들이다. 강남 신사동은 새말과 사평리의 합성이며, 관악 신사동은 신림4동의 준말이다.

6호선

보문역 보문사



보문역과 보문동은 보문사에서 유래됐다. 보문사는 미타사, 청량사와 함께 사승방으로 불렸다. 현재는 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보문종의 총본산이다.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신중도 등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7호선

천왕역 천왕사



천왕역이 있는 구로구 천왕동은 천왕사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애초에는 천왕(天王)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임금 왕(王)' 대신 '왕성할 왕(旺)'으로 바꿨다. 천왕사는 인근 굴봉산이 있었는데 이곳 봉우리 명칭은 염주봉〈사진〉이다.

8호선

암사역 암사



암사역이 있는 암사동(岩寺洞)은 '바위 위의 절'에서 나온 명칭이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의 절인 백중사에서 기원한다고 전해지며, 9개의 사찰이 있어 구암사(九岩寺)라고 했다. 암사동에는 부처고개가 있는데 여기의 석불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가져갔다.

9호선

봉은사역



새로 만들어진 9호선에는 아예 사찰이 역명인 '봉은사역'이 있다. 강남 지역 도심사찰을 대표하는 봉은사는 794년 연회국사가 세운 경성사가 전신이다. 이후 1498년 성종 계비 정현왕후가 선릉의 재궁으로 절을 중창하면서 봉은사라 칭하게 됐다. 임진왜란 때 전소됐으나 벽암 각성에 의해 1637년 중건됐다.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과정

불교 인성 교육

스트레스와 물질주의에 지친 청소년 내면의 힘을 키운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마음등불사업〉 참여 프로그램

1. 마음의 주인 – 고정관념 깨기
2. 세상을 바로 보다 – 지혜 계발과 활용
3. 우리는 생명 공동체 – 공감과 자비심 키우기

일 정 : 2018년 6월 8일(금) ~ 10(일) 2박3일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교 육 비 : 20만원
정 원 : 30명 (선착순 마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문 의 : 031-470-3200
웹사이트 : http://edu.hansi.org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불교인구 조사 결과 2

종교인구 조사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불교의 종교적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대중을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봐 불교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희정 창원중앙고 교사는 2월 22일 불교평론 열린 논단서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주제로 강의했다. 부처님을 도덕교사로 상정한 신 교사는 부처님의 교육은 즉 대화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교사는 특히 "붓다의 교육은 즉 붓다대화법이다. 붓다대화법은 내용으로써 연기며, 동시에 형식으로써 연기이고, 내용으로써 마음이면서 동시에 형식으로써 마음 그 자체"라고 설명하며 "붓다는 표면적으로 직접전달이지만 심층적으로 간접전달이라는 이중구조로 진리를 가르쳤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실천 수행하기를 설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붓다는 깨달음의 길 안내하는 대교육자

주제 :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신희정 교사 창원중앙고



도교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부처설법도' 석판. 3세기 쿠샨왕조 시대의 작품으로 간다라미술 양식을 담고 있다.

현대 교육에서 바라본 붓다의 교육

붓다는 교육자인가 아닌가? 붓다는 보통사람이 아니고, 학문과 기예를 특정한 발달 단계에 있는 대상에게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육은 사람됨을 목적으로 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 향상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교육을 정의하고 나면 아마 동서고금에서 붓다 이상의 대교육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붓다는 오랜 실천 수행 끝에 스스로 법(法, dhamma)을 깨달은 자요, 체화된 진리부터 나오는 권위로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음에 이른 방법과 동일한 길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로서 붓다의 면모는 붓다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초기경전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붓다는 단계적 접근을 하는 현대 도덕과 교육과 유사한 목표와 방법을 승가(僧伽)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는 선생이자 스승이었다. 선생으로서 붓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경전은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교육이론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의 강점은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스승-제자-대화내용-대화방법'이 현대 도덕 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교사-학생-교과내용-교수방법'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초기경전은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여러 상대자와 나눈 대화들을 기록한 플라톤의 대화편과 동일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경전은 붓다의 '대화편'으로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교사로서 붓다를 상정하고, 초기경전에서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을 위하여 현 시대와 미래의 보다 좋은 삶을 위한 지혜의 스승으로서 붓다를 지금 여기에 불러내면 붓다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혜안을 주는 인생 교사가 되어줄 것이다.

붓다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

고따마 붓다는 사문유관(四門遊觀) 후에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에 의문을 품고 네 번째 문에서 본 수행자처럼 출가하였다. 붓다는 괴로움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즉 완전한 행복[涅槃]에 이른다. 깨달음에 이른 붓다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衆生)들에게도 자신과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붓다 대화법이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른 스승 붓다가 자신과 동일한 깨달음이 제자들에게도 실현될 수 있도록 각각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가르침을 펼친 붓다의 마음 그 자체이다. 붓다 대화법은 깨달음을 내용으로 하고, 가르침을 방법으로 한다. 붓다의 깨달음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붓다 대화법을 통해서 깨달음이 드러나게 되므로 결국 붓다 대화법은 가르침이요 동시에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현대 도덕선생님
'붓다 대화법'으로 교육해
괴로움(苦)을 배움기제로
끊임없이 실천 · 수행 유도

붓다의 대화편에서 표면적으로 빈번하게 드러나는 내용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붓다는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괴로움[苦, dukkha]이 주는 진리[=四聖諦]를 가르쳤다. 붓다는 괴로움을 배움 기제로 활용한 것이다. 괴로움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 요소이다. 붓다는 괴로움이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을 바른 앎과 봄을 통하여 체득한 연기(緣起)를 가르치고자 하였다. 붓다의 깨달음은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붓다도 피해갈 수 없는 자신의 괴로움과 절박하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구도 과정에서 발견한 연기이다. 정리해보면 붓다의 교육, 즉 붓다 대화법은 내용으로써 연기이면서 동시에 형식으로써 연기 또한 내용으로써 마음이면서 동시에 형식으로써 마음 그 자체이다.

붓다는 괴로움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고 이때 괴로움을 경험하는 나는 연기된 마음임을 알고 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붓다는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말했던 것이다. 도덕과 교육에서 바라볼 때 이 과정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괴로움을 도덕적 탐구 대상으로 삼는 '앎을 전제로 한 봄'으로써 도덕적 성찰과 다름없다.

붓다의 대화편에서는 반드시 앎이 먼저이고 봄이 이어지는 순서로만 설해진다. 이를 활용한다면 그동안 도덕과 교육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도덕적 성찰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붓다 대화법은 도덕적 성찰 전통을 이끄는 스승의 면모와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의 붓다에 의해 빈번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삼특상(三特相)은 가치와 당위의 문제가 얽혀있는 인간의 실존적 삶을 대변하는 논증구조이다. 이것은 무아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실천 윤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윤리적 선택을 고려한 붓다의 기획으로 볼 수 있다. 붓다는 괴로움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진리로 삼아 고통 받는 인간의 존재를 직시하게 하였다. 붓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의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게 하였다. 도덕적 성찰을 통한 무아의 이해와 실천은 탐진치(貪瞋癡)를 일으키는 갈애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마음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붓다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생로병사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괴로움[苦苦]을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 오면 일단 피하고 싶을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괴로움을 겪을 때 그것을 직시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고 아예 그 즐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苦, dukkha)는 성스러운 진리임[苦苦聖諦]'을 알게 해주고 고통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작용하는 연기를 보도록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은 붓다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붓다의 가르침은 대화로써 완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의 고통은 붓다에게 기대어 해소될 수 없고 스스로 그 소멸에 이르는 길, 즉 8정도를 닦아야 해소되기 때문이다.

붓다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때 붓다의 교육원리는 간접전달과 비교하거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직접전달'로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붓다 대화법은 표면적으로는 직접전달이지만, 심층적으로는 간접전달이라는 이중구조를 띤다. 직접전달과 간접전달이라는 이중구조는 고(苦)를 통해 연기(緣起)라는 진리를 알고보고 이를 실천하게 하려는 붓다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붓다 대화법은 교육적 전달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간접전달과 직접전달이라는 연기적 이중구조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실천 수행하기를 설득한 것이다.

붓다 대화법은 설득의 이중구조 속에서 교육적 참의미가 드러난다. 1차 설득은 완결된 가르침이 되는 '앎과 봄의 탁월함'에 도달하기 위한 선정 수행으로 유도한다. 완결된 가르침은 깨달음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고 초기불교 대화편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가르침이기에 대화상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복'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완결된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실현되지는 못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본래 차별이 없어 평등하지만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게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때문에 2차 설득이 발생한다. 이 때 붓다는 제자의 능력과 때에 따라 적절한 표현과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성을 띠는 가르침을 펼친다. 특수성을 발휘하는 붓다 대화법은 '대기설법(對機說法)'과 '차제설법(次第說法)'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질문, 비유, 과제 탐구, 무기(無記)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붓다의 가르침은 2차 설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붓다 대화법의 존재 의미와 실현은 대화 상대자로서 학생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방 없는 대화가 있을 수 없듯이 붓다 대화법도 그 법이 구현될 누군가가 있을 때에만 법이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학생 차원에서 붓다 대화법은 설득의 이중구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아마도 학생 차원에서 붓다의 설득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면 붓다 대화법은 '이해의 차원'에 머물러 '체득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고통과 감각적 즐거움에 매여 그것이 괴로움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은 일차적으로 직접전달이어야 한다.

신희정 교사는… 창원중앙고 '윤리와 사상' 교사. 경상대 윤리교육과, 한국교원대 석 · 박사 과정 졸업. 주요논문으로 〈초기불교 수행법의 도덕교육적 의의〉, 〈중학교 도덕교화서의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초기경전에 나타난 '붓다 대화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등이 있다. 현재 불교 도덕교육론을 공부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 현장서 적용하고 있다.





수법당장엄일체
미단단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조선시대 승가엔 어떤 분쟁 있었나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⑤ 불갑사 도영 스님이 보낸 편지

1840년 7월 3일 불갑사 승려 도영은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다. 크기는 27.2cm×43.0cm이고 행서체로 꾹꾹 눌러쓴 편지로, 정중함이 묻어난다. 겉봉투 상단에 '대둔사 초의사주 대법하 회답(大芚寺 草衣師主 大法下 回答)'이라 썼으니 초의에게 보낸 편지임이 분명하다. 하단의 오른편에 '불갑사 도영 상사장(佛甲寺 道影 上謝狀)'이라 썼다. 바로 초의가 보낸 편지에 대한 도영의 답신인 셈이다. 도영이 총섭차첩(總攝差帖)을 받는 과정에서 초의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분쟁과 관련된 편지는 도영의 편지 이외에도 우활과 성활의 편지, 그리고 도영의 다른 편지 등이 남아 있다. 하나같이 이들의 편지에서 드러난 분쟁의 요인은 총섭차첩을 요청, 부임하는 과정에서 도영과 초의의 입장이 달랐으며, 도영은 총섭차첩(總攝差帖)을 받는 과정에서 초의의 처신에 상당한 불만을 피력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분쟁의 전개는 1840년 3월에서 우활(宇濶)이 보낸 편지를 필두로, 같은 해 7월까지 논쟁이 이어졌는데 도갑사, 대흥사뿐 아니라 안국암(安國庵) 종정(宗正) 우활(宇濶)까지 가세하였고 송광사, 불갑사 승려들도 도영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문제는 같은 해 7월17일 도내승통(道內僧統) 성활(性濶)이 '표충사수호겸팔도선교양종승풍규정도원장(表忠祠守護兼八道禪敎兩宗僧風糾正都院長)'에게 상고한 일을 처리하면서 이관을 청하는 공문으로 보낸 후 일단락된 듯하다. 따라서 도영의 이 편지는 조선 후기 대흥사 총섭차첩과 관련하여 초의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던 도선암(道詵菴), 송광사, 불갑사 승려들의 입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승직에 관련된 대흥사의 논쟁사를 밝힐 근거 자료라 하겠다. 도영의 편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40년 7월 3일 불갑사 승려 도영이 초의에게 보낸 편지. 27.2cm×43.0cm 크기에 행서체로 정갈하게 문장이 쓰여 있다. 하지만 내용은 당시 승직 관련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초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1840년 7월 도영이 보낸 편지
총섭차첩 받는 과정서 보여준
초의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해
도선암, 불갑사 사중 입장 확인
조선시대 승직 논쟁사 연구 사료

해사(海士)가 집안 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금 온 서신을 열어 삼가 살펴보았습니다. 존체가 편안하시다고 하니 우러러 경하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편지에 급히 위에 글을 올리려했지만 성암 노사가 끌어 당겨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는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만약 진실로 상사에게 말하고자 했다면 부임하지 않겠다고 위에 말하시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렇지 않으니 당초에 법형(초의)이 사적으로 인편을 위에 보내, 내려 온 차첩(差帖)에는 여러 조목이 보이지 않았는데, 삼 개월 동안이나 우리 간사의 일을 깊이 묵혀 두었으니 망령되게도 속여 그대로 버려둔 것입니다. 다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첩(受帖)을 요청하고 부임하여 권리를 행한 이후에 지금 위에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태도를 은근히 드러낸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충허간사(虛幹事)가 송광사로부터 온 인편에게 들으니 즉 법형(초의)이 스스로 편지를 써서 성암 사주에게 말하길 '보내 온 차첩은 지난번 원(院)의 장 간사가 상사(上司)에 보낸 것이라' 고 하였으니 이런 망언을 하는 자가 어찌 자기 말이 서로 어긋남을 깨닫지 못하는가. 서로 어긋나는 것은 3월에 장 서방 편에 보낸 편지에서 보장(報狀)이 오기에 앞서 사적으로 인편을 통해 위에 올렸다 말했고, 지금 온 회보(回報)에 말하는 것은 즉, 사적으로 인편을 보내 올린 말이라 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일의 착오를 의심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묻기를 '다시 보낸 차첩에 본원의 간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장 서방의 답에 '나의 삼촌 친척 되는 사람이 해남 신연 이방편에 부탁해 왔다' 고 했습니다. 또 '총섭차첩(總攝差帖)은 예조참판인 나의 삼촌이 옮긴 것이라' 고 합니다. 그러므로 첩은 삼촌에게 있다고 하더라.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후, 법형(초의)이 사적으로 인편을 왕래한 일임이 또렷하고 확실히 알았기에 그만 둔 것입니다. 지금 전임 원장간사가 상사에 차출을 가게 했다는 망언은 애매모호해졌으니 어찌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이 망언의 당처(當處)는 충허 스님에게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에 가득 찬 많은 말들은 글자 하나하나가 곤란한 말입니다. 전해 들으니 즉 통탄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 법형(초의)의 망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활 간사가 돌아와 말하기를 '초의가 다른 사람에게 부임수첩을 요구했다' 고 하니 이 말을 듣고 곧 마음이 불쾌해졌으며 후일 쟁송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즉시 편지를 보내 '차첩을 돌려보내시고 부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일일이 지적하여 말한 것은 삼 개월을 생각한 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흥사 인편에 스님께 전합니다.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급히 부임한다면 쟁론이 일어남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무릇 쟁론의 폐단은 모두 법형(초의)의 친한 사람을 상사(上司)에게 보내, 내려온 첩(帖)을 스스로 돌려보내지 않고 첩(帖)을 받아 부임한 것이 과실입니다. 간사가 관계한 모든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법형(초의)이 사적으로 보낸 인편으로 인해 차출된 것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아, 우연히 승려에게 염치없는 억울함을 당한 것이 원통하고 분합니다. 편지에 가득 눈물이 넘칩니다. 이만. 1840년 7월 초3일 도영 올림.

海士久滯家事 今來傳書開緘 謹審尊體萬安 仰賀無任 第書內欲辭上 而惺老挽住云者 知是欺言 若眞欲辭上 不赴任而辭上 猶可也 今旣不然 當初法兄私因便送上 下來之差帖 不現衆目 深藏留置 三月吾之幹事 欺妄率去 復與衆人偕請受帖 赴任行權後 今辭上之言 可當耶 此欺人之色欲隱彌露 又向者 虛幹事 自松廣來便聞見 則法兄自作書簡 告惺庵師主曰 所送差帖 舊院丈幹事 去上司下來云云 如是妄言者 何不覺自語相違耶 所以相違者 三月張書房便送簡曰 報狀前私因便送上矣 今來回報云 則私因便送上之言 見之 則任事違差不無疑 故余問曰 更差帖以本院幹事不出來耶 張書房答 吾之三寸親人 海南新延吏房便付托來 又問摠攝帖何在耶 答 摠攝差帖 禮曹參判吾之三寸名移差 故帖在三寸云云 如是言聞之後 法兄私因便往來事 昭昭知而坐 今以曖昧舊院丈幹事去上司差出之妄言 何不相違耶 當此妄言處 虛以實言聞之 故滿紙長語 字字困說 傳聞則不勝痛ㄷㄷ者 皆起於法兄妄言中也 又活幹事回來曰 草衣要人受帖赴任云云 此言聞則不快心自動 恐似有日後諍起故卽時送簡曰 差帖還退勿赴任事 一一條陳 三月念後 雲寺便傳于座下矣 終不聽吾言 速赴急任 何起諍論乎 大凡諍論之病 都在法兄親人去上司來帖不得自退 受帖赴任之過也 幹事萬關見敗 法兄私便差出之憎怨 噫偶然見得 僧人無色之寃 則痛憤也 漏滿封一 伏惟 庚子 七月 初三日 道影 拜

이 편지에서 도영이 초의를 법형(법형)이라 부른다는 점이다. 불갑사는 당시 대둔사(대흥사)의 말사였다. 그러므로 도영이 초의를 법형이라 부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분쟁은 무엇에서 발단된 것일까. 같은 해 3월 17일 우활(宇濶)이 보낸 편지에 "본사 원장 스님에 보고한 것입니다만 지난번 예조에 보고한 후, 간사(幹事) 스님이 망기(望記)에 개인적으로 고쳐 첩을 내기 때문에 간사한 상황은 잘못된 보고이며 망기(望記)도 거짓된 것이라 조치할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고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하지만 초의는 우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기에 다시 불갑사 도영이 편지를 보내 "지난번 충허 간사 편에 법형과 성암 사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회신이 없으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종정이 결정하여 운흥사 인편에 돌려보내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성암 사주께서도 함께 회람하시기 바랍니다.(向者 虛幹事便 書送于法兄與惺庵師主矣 今無回示 故更告 則宗正決事 雲寺便回示爲望耳)"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해 3월 17일 우활이 언급했던 간사는 충허(虛)였고, 이 일과 관련된 인물은 초의와 성암 사주였음이 이 편지로 밝혀진 셈이다.

1840년 3월 26일에 도영의 편지에는 이 분쟁은 더욱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이 무렵 초의는 표충사 원장 소임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원의 소임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편지는 1840년 7월 3일에 초의에게 보낸 도영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 "편지에 급히 위에 글을 올리려했지만 성암노사가 끌어 당겨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는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만약 진실로 상사에게 말하고자 했다면 부임하지 않겠다고 위에 말하시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라고 하여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초의가 원장 소임을 맡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바로 예조(禮曹)에 보고한 내용은 간사가 허위로 꾸민 대로 내려온 문서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의의 입장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바로 초의 자신이 상부에 글을 올리려 했지만 성암 노사가 못하도록 만류하여 늦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의의 입장 표명에도 도영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바로 초의에게 총섭차첩(總攝差帖)을 보낸 것은 "초의가 다른 사람에게 부임수첩을 요구했다' 고 하니 이 말을 듣고 곧 마음이 불쾌해졌으며 후일 쟁송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즉시 편지를 보내 '차첩을 돌려보내시고 부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다.

만약 초의가 끝내 총섭에 부임한다면 "쟁론이 일어남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무릇 쟁론의 폐단은 모두 법형(초의)의 친한 사람을 상사(上司)에게 보내, 내려온 첩(帖)을 스스로 돌려보내지 않고 첩(帖)을 받아 부임한 것이 과실"이라는 도영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초의의 입장은 "보내 온 차첩은 지난번 원(院)의 장 간사가 상사(上司)에 보낸 것이라' 는 점은 밝혔던 것이다.

이 분쟁은 4개월간 지속되다가 1840년 7월17일, 도내승통 성활이 보낸 공문으로 종결된 듯하다. 이 공문에는 논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첫째 우활이 총섭첩문을 잃어버렸으나 모두 다시 줄 것이라 생각하고 간사함을 일으킨 것이 잘못인데 상부 관청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구 원장이 새로 총섭을 맡으면서 자신이 규정에 있으면서 처음에 상부를 범한 잘못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승통은 한 도를 규정하고 원장은 팔도를 총섭, 규정하는 것인데 자의로 일일이 논하여 보고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잘못을 범했는데도 승도에게 내려 보낸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 부임한 초의는 도영의 부당함을 팔도총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였다. 당시 총섭첩과 관련된 분쟁은 초의의 입장대로 처리되었을 것이지만 대흥사, 불갑사 사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자료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5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제12기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수시모집
- 수강자격 :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사물다루는 법 ❷ 49재 의식, 천도재 위주 ❸ 천수바라, 나비춤 ❹ 극락무, 살풀이
- 준 비 물 : 요령, 목탁, 태징, 바라, 북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지도강사
- 범음범패 : 진효, 성우 스님
- 태 평 소 : 시우 스님
- 성명학 명리학 : 삼규, 해각 스님
- 살풀이 극락무 : 이채향 (여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 연 락 처 : 회장(대현) H·P 010-8725-3196
  총무(도천) H·P 010-6266-8882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회장 대현

절집에 꽃피운 한옥과 민화의 美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⑤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내부 향좌측 벽면의 매화선학도


응진전 내부 향우측 벽면의 봉황도


우화루 대청에서 바라본 응진전

우화루, 두 요사, 법당으로 ㅁ자형
한옥 고택의 안채에 들어서는 느낌
조형과 문자로 통불교 불국토 장엄
단청에 풍부한 민화풍 소재 활용


송암당의 달마도해도와 어변성룡도

마루 높이 맞춰 동선 연결

봉정사 영산암은 응진전을 주불전으로 경영한 봉정사 속의 작은 암자 공간이다. 독립된 암자라기보다는 중심영역에서 비켜 마련한 별채 공간의 느낌을 갖게 한다. 우화루와 응진전, 송암당 등 여섯 채의 건축이 올망졸망 다닥다닥 붙어 ㅁ자형 공간을 연출한다. 건축 저마다의 위상학적 높이는 산지지형에 따라 서로 다른 표고(標高)를 가진다. 하단, 중단, 상단의 세 높이의 마당에 맞춰 건축을 배치했다. 하단에는 진입누각인 우화루가 성벽처럼 정면을 버텨 서있고, 중간 마당 좌우에는 송암당과 관심당의 두 요사채 건물이, 상단에는 응진전과 삼성각, 염화실이 있어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이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화루의 이층 대청마루가 중간마당 좌우에 배치한 두 요사채 마루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세 건물의 마루를 같은 높이에 맞춤으로써 건물끼리 단절됨 없이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회랑처럼 실내이동 동선의 연속성을 구축한 것이다. 유기체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순환동선의 확보로 인해 건축공간에 보다 따스한 서정과 생동감을 살려내고 있다.

이런 연결 순환성 갖춘 건축은 안동, 봉화 등에서 특별히 발달했던 재사건축, 이를테면 서지재사, 가창재사 등 유가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색이다. 사찰건축에서 대청마루나 쪽마루를 채택한 경우도 특별하거니와, 더구나 마루를 통해 세 건물을 연결한 사례는 오직 이 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다. 특히 아담한 크기의 화단 수목들과 자연석 계단, 바위에 조경한 반송들과 어우러진 정경들은 고향집 서정의 평온함과 따스함, 소박함을 선사한다. 수행절집이 아니라 고택의 안채에 들어선 느낌을 갖게 한다. 뜻밖에도 절집에서 한옥의 푸근함과 아름다움을 만나는 기쁨에 젖게 한다.

하단의 건축은 우화루이고, 중단의 중심건축은 송암당(松巖堂)이다. 송암당은 바위에 조성한 소나무 곁의 요사채다. 건물의 삼면에 마루를 낸 정감 있는 건축이다. 마당쪽으로는 툇마루를 내고, 측면에는 대청마루를, 뒷면에는 쪽마루를 달았다. 물론 그 마루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송암당의 인상적인 단청장엄은 마당쪽 창호 상인방 흙벽에 조영한 벽화를 꼽을 수 있다. 벽화의 공간적 배경은 연꽃이 만발한 연지(蓮池)다. 연지에 등장하는 중심 소재는 용과 연꽃, 인물에 얽힌 고사다. 눈에 우선적으로 띄는 대목은 파도 속에 내민 용의 정면 얼굴인데 네 곳에 등장한다. 네 마리 용은 서로 다른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양 협칸의 용은 정면을 보고, 가운데 두 용은 좌우를 각자 주시한다. 화재나 사악함으로부터의 벽사 역할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용 소재의 다른 장면은 일출무렵에 물고기가 용으로 극적으로 변하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의 묘사 장면이다. 어변성룡도는 민화에서 선호되는 소재로, 잉어가 용문의 거친 협곡을 도약하여 오른다고 해서 '약리도'라고도 부른다. 벽화의 한 쪽에 붉은 글씨로 어변성룡의 방제를 적어 놓았다. 어변성룡도의 다른 쪽엔 달마대사가 갈대 가지를 꺾어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 '달마도해(達磨渡海)'를 묘사하고 있다. 스님이 거주하는 요사채의 건물에 진채 안료를 사용한 단청 별지화 장엄은 이례적인 대목이다. 맞은편 요사채인 관심당엔 단청장엄을 생략하고 있어 대비의 잣대를 들게 한다.

영산암의 중심불전은 응진전이다. 영산암의 응진전은 불상의 봉안이나 장엄에 있어 대단히 이채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여러모로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응진전에 모신 존상은 삼존불과 16나한상이다. 삼존상은 제화갈라보살, 석가모니불, 미륵보살의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불이다. 하지만 불전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면 곳곳에 문자언어로 부처님 세계를 봉안하고 있어 통불교적인 불전건물의 특성을 드러낸다. 향좌측 대들보와 도리에 '극락도사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관상하게 먹으로, 혹은 흰 글씨로 적어 뒀다. 또 정면 어칸 내부공포 세 칸에는 각각 '현만보신불', '청정법신불-비로희', '동방약사불-유리회' 등 부처님과 불국토의 세계를 묵서로 봉안한 유례없는 장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심불상으로 모신 석가모니불을 염두에 둘 때 이 곳 응진전에는 갈라보살-석가모니불-미륵보살의 삼세불과 보신 노사나불-법신 비로자나불-화신 석가모니불의 삼신불, 약사여래-석가여래-아미타여래의 삼존불을 두루 봉청, 봉안한 통불교 형식의 불국 만다라를 경영한 셈이다. 대웅보전, 대적광전, 극락보전, 약사전을 두루 통합한 형식에 가깝다. 즉 전각의 이름만 응진전이지, 하나의 독립적인 사찰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형과 문자를 통한 통불교 불국토 장엄으로서, 그 장엄의 의미가 독특하다 하겠다.

호작도, 약리도, 선학도, 포도 등 민화풍

응진전의 장엄세계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불교적 색채 보다는 19세기 민간에서 유행하던 민화풍의 벽화들이 단청장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벽화는 색채가 많이 퇴락했지만 윤곽과 형태는 살필 수 있다. 향좌측 벽면에선 호작도와 불사약을 찧고 있는 토끼 한 쌍의 그림이 눈길을 끈다. 호작도는 호랑이와 까치를 함께 표현한 까치호랑이 그림으로, 액막이와 길조의 상징성을 담은 까닭에 조선후기 민화의 단골소재로 활용했다. 사찰벽화로 표현한 까치호랑이는 이 곳 외에 통도사 명부전과 해장보각, 용화전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불사약을 빻고 있는 토끼 한 쌍의 민간설화를 사찰벽화로 만나는 경우도 극히 이례적이다. 사찰장엄에서는 순천 선암사 원통전 창호 궁창 등에서 드물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고구려 벽화 고분 개마총 천정벽화 등에서도 보름달 속에 절구질하는 토끼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엄숙한 종교장엄의 사찰벽화 속에 미소를 자아내는 그 같은 해학과 재치의 표현이 사금파리처럼 빛난다. 향우측의 벽면에서는 송학도와 용을 밧줄로 낚아 올리는 두 선인 벽화 두 점이 있다. 다채로운 소재 운용에서 사찰장엄 벽화의 폭넓은 수용성과 관용성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민화가 사회저변에 확대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종교장엄의 도식적 경직성에 벗어나 대중적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한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응진전 내부 단청벽화 역시 민화풍의 소재를 풍부하게 풀어 놓았다. 어변성룡도, 봉황도, 선학도, 파초, 포도, 대나무 등 다양하다. 불교장엄의 색채를 지닌 벽화소재는 연화화생도, 심우도, 나한도, 운룡도, 남극노인성(태산노군) 등이다. 어변성룡도는 대들보 중간인 계풍에 그려 넣었는데, 금빛 수염을 가진 황금빛 잉어가 태양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형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김해 은하사 대웅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공주 마곡사 응진전,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등의 대들보 계풍에서도 어변성룡도의 표현이 나타난다. 내부의 많은 벽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림은 선학도와 봉황도, 연화화생도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학도와 봉황도는 형태, 색채, 구도 등에서 붓질이 대단히 치밀하고 섬세한 수준작이어서 주목된다.

아미타내영으로 12명 연화화생

선학도에 등장하는 핵심소재는 쌍학, 고매(古梅), 길상화, 보름달, 불사초이다. 고매는 꽃이 만발한 백매다. 검은 매화 등걸은 용틀임하듯 역동적이고, 보름달이 휘영청 매화가지에 걸려 있다. 매화나무 아래에는 영지버섯 같은 불로초가 뭉게뭉게 피었고, 길상화는 푸른 이끼 낀 매화나무 등걸을 칭칭 감아 올라 활짝 핀 붉은 꽃가지를 능수버들처럼 폭포수로 늘어뜨리고 있다. 길상과 수복강녕의 염원을 읽을 수 있다. 어느 한 곳 흠 잡을 데 없는 대단히 빼어난 수작이다. 그 맞은편의 봉황도는 또 어떠한가? 우선 강렬한 보색대비의 색채운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위와 깃털, 오동나무의 묘사에서 힘과 섬세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

벽화의 가장자리엔 '봉명조양(鳳鳴朝陽)'이라는 붉은 색 방제를 써 두었다. 아침 햇살에 봉황이 운다는 뜻이다. 천하가 태평할 조짐을 담고 있다. 선학도와 봉황도의 채색원리를 살펴보면 통도사 명부전 벽화들과 상당히 닮았음을 알 수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화원들에 의해 그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응진전 내부장엄 중에서 유심히 살펴볼 또 하나의 벽화는 아미타삼존 내영과 연화화생 장면을 표현한 향좌측의 벽화다. 아미타내영 부분은 가구시설에 가려 볼 수 없지만, 조금 드러난 부분을 통해 일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또 벽화 바로 위 건축부재에 '극락도사아미타불'의 명호를 밝히고 있기도 한 까닭이다. 연꽃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화생하고 있는 사람은 총 12명이다. 커다란 쌍수 아래서 화생하고 있는데, 모두의 시선은 아미타여래께로 향하게 했다. 파주 보광사 대웅전 외벽에서도 연화화생 장면이 등장한다.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장면들이다.

한옥의 따사로움과 아름다움이 물씬 묻어나는 건축 공간에서 빼어난 민화풍의 회화들과 연화화생도를 두루 접할 수 있으니 영산암 절집에서 만나는 고귀한 장엄, 귀한 인연임에 분명하다.

〈사진작가〉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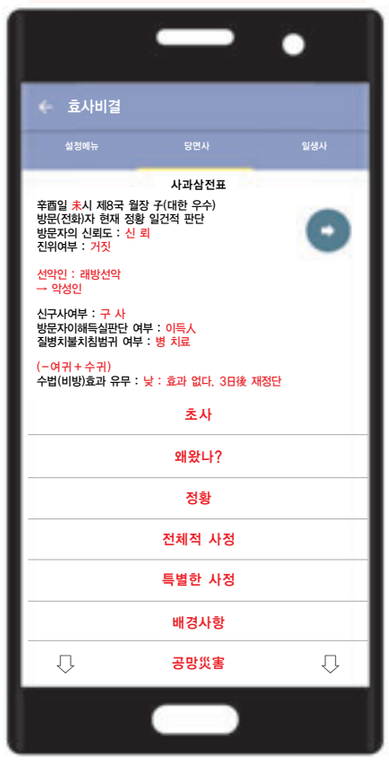
- 강의장소 : 1호선 종로 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성명,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택배비 무료)
-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휴대폰에 육임 CD프로그램
'효사비결 최신완결판'을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당면사 27개 항목, 일생사 17개 항목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 효과성 · 신속도 · 간편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① 육임 당면사 즉단 27개 항목



② 육임 성부판단 24개항목과 12띠별 확정



원터치 기능

- 상대의 공 · 사적 비밀 사항 적시
- 귀신 · 부정 · 산소탈 침범 적시
- 질병 치 · 불치 · 오래끔 적시
- 천도 · 시식 · 기도 효과 유무 적시
- 대적자 처신 방침 적시
- 묻는 사항 24개 항목 띠별 성부 적시 등등

- 정 가 : ~~30만원~~ → 20만원 (3월 31일까지 할인)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예금주 :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 · 야 010-6400-0939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돈 벌려면?… 행운, 능력, 근면, 모험 필요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⑤ 능력과 행운 사이

내가 젊었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누가 했다면 나는 '능력'이라고 말했을거다. 지금 누가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나는 '행운'이라고 답하겠다. '행운'이라고 말하면 맥빠져 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행운이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선 과연 행운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사업가가 자기가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며 느낀 것은 행운이 사업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능력도 있고 노력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업가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행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지 모른다. 불교가 기복에 흐른다는 비판을 받지만 나는 삶이 힘들고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세상에서 고통에서 허우적 거리는 중생이 복을 비는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다. 기복은 어쩌면 행운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는 삶에서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려보는 중생의 심정이 아닐까? 우리는 부처님께 행운을 빌며 스스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지도 모른다.

행운이 중요한게 어디 사업 뿐인가? 나는 평생 학자의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에서도 행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부하겠다는 나를 뒷받침해 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도 행운이고 교수라는 직업이 가장 좋았던 시절 교수를 했던 것도 행운이었다. 미국에서 박사를 할 때 좋은 지도교수를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 무엇보다도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 행운이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는 누구나 실력 있는 학자다. 그러나 모든 실력 있는 학자가 노벨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말 소수의 학자만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행운을 얻는다. 예술의 세계에서도 우연히 대가의 눈에 띄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예술가가 있다. 정치도 그렇고 사업의 세계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 각종 성공에서 언론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언론에 부각되는 학자, 예술가, 정치가는 갑자기 스타가 되기도 한다.

세상은 참으로 알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계획한대로 된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대학진학도, 전공선택도, 미국 유학도, 군대 입대도, 배우자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원래 의도하고 소망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일이 잘못될 때 불운이었고 일이 잘 될 때는 행운이었다. 나의 능력과 노력은 생각보다 작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금도 남은 생을 살며 내가 과연 계획한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만 자신은 없다. 무엇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 행운이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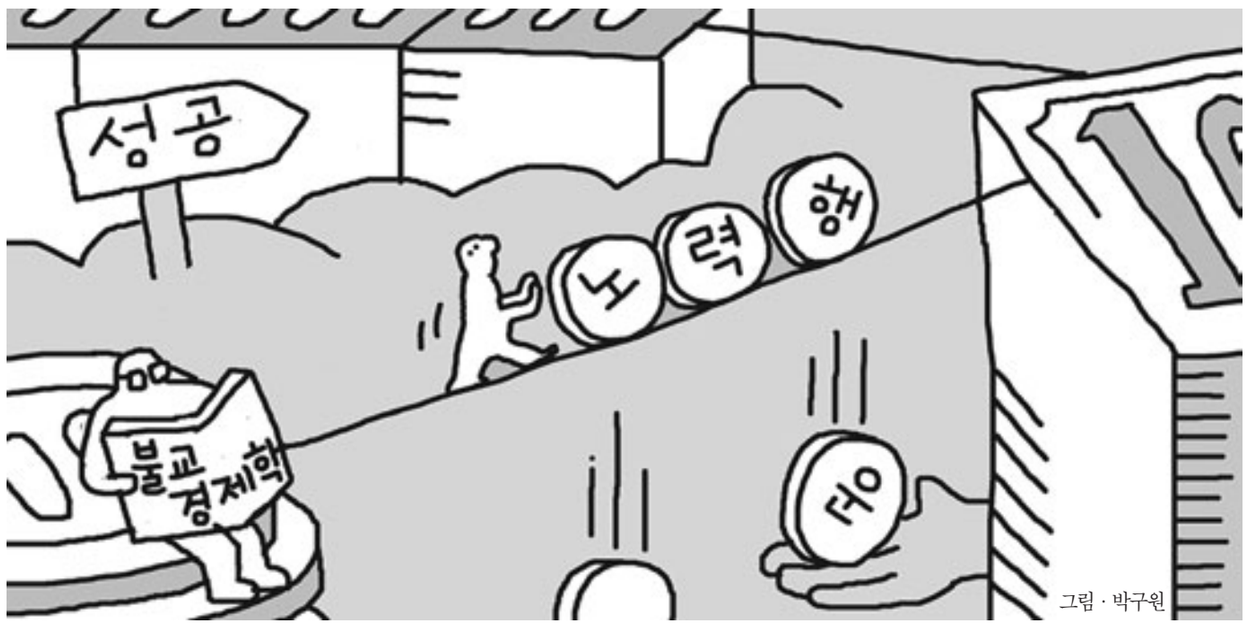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불교는 세상을 연기법이라는 시각을 통해 과학적으로 본다. 우리 눈에 행운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만나서 임시적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가 관련되는 모든 요인과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요인과 조건의 작용을 행운이라고 부를 뿐이다. 알 수 없는 요인과 조건의 작용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 한 가지 방법은 학문을 통해 알 수 없는 요인과 조건을 알아내려는 시도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역술을 통해 신비한 세계의 힌트를 찾으려한다.

나는 평생 학문을 해왔지만 자연과학이나 공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을 했다. 돈에 관한 학문은 경제학, 경영학이며 모두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과학의 흉내만 낼 뿐 현상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한다. 오직 사후에 현상을 합리화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역술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학자의 예측을 조사했더니 역술인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 사업가가 학자보다 역술인을 찾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떤 사업가가 중대한 투자를 놓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한다. 그가 학자를 찾아서 현란한 분석 결과를 듣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나 역술인을 찾아가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다. 어차피 투자가 성공할까 실패할까는 확률이 1/2이니 맞추기 쉽다라는 농담도 있다. 불교는 행운을 어떻게 볼까?

불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삶의 자세이다. 만약 불교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평생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 불교교리를 전개해오신 부처님은 부자가 되는데 있어 행운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만약 부처님이 행운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셨다면 나는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생경은 "재주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행운이 없는 자는 재물을 모을 수 없다"라고 설한다. 나는 이 구절을 처음 접하고 무척 기뻤다. 역시 불교는 세상의 법칙을 매우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 나는 부처님이 '착하게 살면 돈 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세상의 작동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처님은 논리의 화신이라고 불리우며 엄격한 과학적 법칙을 사고와 행동의 근본으로 삼으셨다. 얼핏 행운의 중요성을 인정하신 부처님은 비과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의 작동원리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인은 행운이다.

사업 · 공부 등 행운 따라야
행운의 다른 이름은 인연
능력 · 노력 · 결단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현상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한다. 부처님은 과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추측해야만 하는 걸까? 부처님은 뜻밖에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불교경전의 여러 곳에서 설하셨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둘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능력이란 기술과 창의성을 말한다. 중아함경은 "마땅히 먼저 기예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라고 설한다. 당시에는 농업사회에서 상공업이 새로 등장하여 신흥 상공업자들이 대거 출현한다. 바라문과 크샤트리아 계급이 아닌 바이샤 계급이 주로 상공업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권력까지 행사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이다.

부처님은 상인에 비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셨던 것 같다. 장사를 하면 돈벌기가 가장 쉽다고 표현하신 구절도 있다. 부처님은 기술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 받는 것을 강조하셨다. 능력은 꼭 기술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의사결정 능력이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번 비결을 물으니 '저는 잘 사고 잘 팔았어요' 라고 말했다. 주식도 가장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면 돈을 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침체기에 사서 호황기에 팔면 된다.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중요한 정보와 자료가 충분하면 남보다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 동일한 정보와 자료 하에서 어떤 사람은 결정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정을 망친다. 미국에서 학자들이 명상에 의해 정념을 소지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 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주식 가격이 오를 때 마음이 조급하여 추격 매수하는 마음의 동요를 알아차리면 정념이 있는거다. 주식 가격이 추락할 때 공포에 빠져 싼 값에 주식을 내다파는 마음의 혼란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념이 없는거다.

어떤 여성 사업가는 1천억원대의 자수성가 부자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도 아닌 여성이 1천억원대의 자수성가를 했다면 대단한 일이다. 나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궁금했다. 비결을 물었더니 자기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눈을 감은채 곰곰 생각을 한단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는거다. 그 사업가는 불자는 아니었지만 내 눈에는 명상을 하며 정념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녀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았다.

셋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한다. 잡아함경은 "저 늙은 부부가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구하였더라면, 슈라바스티 성에서 첫째가는 부자 장자가 되었을 것이요…"라고 설한다. 경전의 곳곳에서 꿀벌이 일하듯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 불교는 정진을 강조하는 실천의 종교이다. 수행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되듯이 일도 열심히 해야 돈을 번다.

나는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 받은 부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부자 중에서 게으른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신념의 마력' 을 쓴 나폴레온 힐이 부자를 인터뷰해서 모든 부자의 공통 요소로 근면을 강조했다면 책이 거의 팔리지 않았을거다. 근면을 강조하면 다들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진부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모두 돈을 벌고 싶어하면서도 근면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건 나도 알아'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나는 사람이 근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정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근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두 근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돈을 벌고 싶다면서 근면한 사람은 매우 적다. 그것을 보면 근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거다.

넷째 돈을 벌려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이 있다. 한국에서도 100만권 이상 팔린 굉장한 베스트 셀러였다. 나도 제목이 관심을 끌기에 빌려서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봉급쟁이로는 돈 벌기 어려우니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시종 일관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책으로 돈을 벌다니 다소 황당하기도 했지만 나름 설득력 있는 예시가 많은 탓인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얼마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 저자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다고 한다. 사업은 확실히 위험한 것은 틀림 없다.

부처님은 농업 이외에 상업, 목축,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을 하라고 권하셨다. 농업은 안정된 일이지만 나머지 일은 농업보다는 위험부담이 더 크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험을 해야 한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라면 모두가 할 것이고 그러면 돈 벌기 어렵다. 위험부담이 있으니 망설이게 되고 소수가 모험을 하며 극소수가 성공하는 것이 사업의 세계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무조건 사업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사업가의 자질을 타고 나고 충분한 자본이 있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모험일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박일 수 있다. 부처님이 열심히 돈을 벌라고 했고 돈을 벌려면 모험이 필요하다고 하니 회사에 사표 내고 너도 나도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각자 자신과 환경을 살펴서 모험을 해야지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모험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한 요인은 이 네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인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네 가지만 있어도 돈을 벌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

대승 수행 결정체, 평등사상 알리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⑨ 승만경

〈승만경〉은 여성으로써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사자후, 즉 설법을 한 경전으로 〈유마경〉과 더불어 재가자의 설법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한글대장경 〈대보적경〉119권 48 승만부인회(勝滿夫人會)와 〈무량청정평등각경〉,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滿獅子吼一乘大方便方光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승대방편의 뜻을 사자후, 즉 설법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멋있다. 부처님의 법에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그들이 속한 사회구조 속에선 여전히 카스트제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일체중생실유불성의 평등론에 입각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회가 변해야 했다. 그것은 긴 기다림이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승만경〉에 등장하는 여성평등의 관점은 초기 대승경전인 법화경시대를 지나고 중기 대승경전시대에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은 많다. 그러나 이 경은 승만이 부처님을 만나 수기를 받고 감동하며 청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자의 길, 가장 청정한 여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수행(如來藏)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며 그 수행에 관한 가르침을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불자의 7-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은 이 경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성세대로서 맑고 청정하고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읽기를 권한다.

승만은 코살라국 사위성 파사익왕과 말리부인의 딸로 아유타국 우칭왕과 결혼하여 부모곁을 떠났다. 아버지는 부처님을 만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나니 시집가서 잘 만날 수 없는 딸이 생각나고 그리움에 사무쳤다. 총명한 승만이 부처님을 만나면 더욱 지혜롭고 행복해 질 것이라 여겨 궁녀를 통해 편지를 보낸다. 승만은 부모님의 편지를 이마에 대고 기뻐하며 노래한다.

"부처님 큰 공덕 내가 듣기론 이 세상에 참으로 희유하온 일, 편지 사연 진실로 그러하다면 반드시 공양해야 하리라. 거룩한 부처님! 세상을 이익하려 출현하셨다면 가련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시어 빛나는 그 모습 보여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가피하시어 승만 앞에 나타나 광명을 널리 비추시니 왕궁의 모든 이들이 놀라 감동하며 부처님 발에 엎드려 예경하고 귀의하였다.

승만이 다음 생에서도 지금처럼 부처님 뵙고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한다.

"승만이여, 내가 이미 오래전에 너를 위하여 정법을 깨닫게 했고 오늘 다시 너를 만난 것처럼 다음 생에도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르침을 수행하여 보광여래가 될 것이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가득하여 모두 대승에 나아가니 대승을 배우는 이들은 그곳에 태어난다."

부처님과 승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청하자 부처님은 모두 그 국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승만이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며 10가지 원을 세우니 대승의 수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실천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처님께 큰 계를 받았다고 해서 십대수(十大受)라 부른다.

"부처님, 저는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계를 지키고, 스승에게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언제나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다른 이의 모습이나 장신구를 질투하지 않으며, 아낌없이 보시하며, 재산이 모이면 반드시 어려운 이들을 돕겠으며, 무주상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난, 병고, 옥고를 치루는 어려운 이들을 항상 구제하며, 정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정진하겠나이다."

이 십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법을 아는 지혜를 반드시 얻고, 이것을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 항상 정법보호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3가지 서원을 세운다. 〈승만경〉에서 청정한 사회는 청정한 자성인 여래의 성품을 찾는 길에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부처님이면 누가 부정한 악인의 삶을 살겠는가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이 경은 말한다.

〈서울 반야사 주지〉

백은 대사의 향취가 느껴지는 언행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⑨ 보살의 제도방편

그 순간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이겠지!' 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이런 의심은 아침 법문을 들어갔을 때 사라지게 됐다.

"그래 두 녀석은 지껄이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네가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네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너는 결국 이 도량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내 마음에 대고 비추듯 완벽하게 아는 선지식의 말씀에 흔들리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새 내 마음은 안정을 찾고 새롭게 선지식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뒤늦게 이때 생긴 선지식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은 나와 같이 의심많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원력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때 선지식께서 언젠가 말씀했던 백은 대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본에 백은 대사(1685~1768)라고 생불로 추앙 받는 유명한 분이 계셨다. 도인을 따르는 수많은 신도 분 중 어느 한 신도의 딸이 시집도 가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딸을 추궁하였다. "어느 놈의 자식이냐" 위기에 몰린 딸은 아버지의 급한 성미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둘러댔다. "백은 스님과……." 아버지는 기가 찼다. 그러나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의 아이라니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딸이 아이를 낳자 분기탱천한 마음으로 스님에게 찾아가 아이를 내던지며 "이 아이는 스님의 아이니 받아 기르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스님께서는 "아 그런가!"만 하실 뿐 아무 변명이 없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아기를 정성껏 키웠다. 이렇게 되니 도인의 골이 말이 아니었다. 백은 대사를 존경하던 수많은 신도들은 스님을 파렴치한으로 보게 되면서 스님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백은 대사는 어렵게 탁발하며 아이를 잘 키웠다.

몇 년이 지났다. 하루는 젊은 남녀가 찾아와 엎드려 절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 "실은 저희들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아버님 손에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아 스님의 아기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님은 아기를 내어주시며 "아, 그런가!"할 뿐이었다. 더 말씀이 없었다.

처녀의 목숨을 살리려 갖가지의 수모를 다 견딘 백은 대사는 분명 육신보살이었을 것이며 선지식은 역시 나를 제도하기 위해 백은 대사와 같은 보살행을 했을 것이다. 말로만 듣던 보살행, 경전에서만 보던 살신성인의 제도행(濟度行)을 선지식께서는 나로 하여금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불경(不敬)의 마음에서 공경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선지식의 제도 방편이 없었으면 선지식에 대한 의심을 깨치지 못하고 결국 법당을 떠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공자의 수제자 안회(顔回)와 같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솟구쳤다.

그 사건 이후 선지식에 대한 공경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 하고 종종 체루비읍(涕淚悲泣)하곤 했다. 또 사건이 있은 후 일체유심조의 진리, 유식무경의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됐다. 즉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고 불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신의 씨가 있어서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마음이 먼저이고 결과가 나중이로구나!'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이 뭣고' 의 법륜을 굴려라

'비여암중보(比如暗中寶) 무등불가견(無燈不可見) 불법무인설(佛法無人說) 수혜막능료(受惠莫能了)' 이라는 말이 있다.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등불이 없으면 어둠 속에 보배를 볼 수 없고, 불법이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담았다 하더라도, 전법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배우고 깨쳐서 불도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뜻이다. 즉 전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말이다. 〈금강경 지경공덕분 제십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점심, 또한 저녁 때에도 매일 목숨 받쳐 한량 없는 백천만억겁을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진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 주는 것만 못하겠느냐"고 했다.

이 말을 되새기며 몇 번째 다짐하고 곱씹는다. 하물며 최상승(最上乘) 근기(根機) 만이 수행할 수 있는 심법이자 활구 참선법인 '간화선 이 뭣고' 를 재가자들에게 전법 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에 비교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최상승 근기는 승속을 막론하고 지식의 높고 낮음을 떠나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이 뭣고' 를 수행하는 참불자를 말한다

핫타까 장자가 500여 대중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 뵈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떤 법으로 대중을 이끌어 가는가?" 장자는 답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섭법(四攝法)입니다."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장하다 장자여"라고 하셨다.

사섭법은 보살이 중생 제도를 서원하고 전법하기 위해 행하는 네 가지 기본 행위(行爲)이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미루고 중생계에 머물 것을 원해 일체 중생을 먼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성인(聖人)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등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누구든지 중생을 제도해 성불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워 수행하는 불자를 보살이라 한다. 오늘은 사섭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핫타까 장자의 대중전법 비결은 '사섭법'
전법포교 못하면 부처님 은혜 못 갚는 것

첫째, 보시섭(佈施攝)은 재시(財施)로 재물을 기꺼이 베풀어 중생을 가난서 구해주고, 법시(法施)로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모르는 중생에게 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둘째, 애어섭(愛語攝)은 보살이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불교의 진리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행(行)이다. 종교는 항상 중생들에게 따뜻함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러므로 애어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는 이행섭(利行攝)이다. 보살이 자기 몸을 희생해 어려운 일도 마다않고 중생을 돌보며, 말과 생각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선행을 베풀어 불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사섭(同事攝)은 보살의 동체대비심에 의해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 몸소 실천하신 분은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이다. 스님은 거지와 땅꾼등 소외받는 계층과 함께 생활 하면서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 까지 무애가무로 참된 가르침을 펴셨다. 또한 조선중기의 고승 언기 대사도 오도(悟道)한 뒤 양치기를 하면서 동물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닦았고, 숯과 물장수를 하며 대동강가서 걸인과 고아들을 모아 함께 생활하면서 교화했다. 이 모두가 동체대비를 실천한 예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포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불전법도중생(若不傳法度衆生) 필경무능보은자(畢竟無能報恩者)' 이라 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값지 못한 것임을 되새기며, 열심히 '이뭣고' 의 법륜을 굴리자.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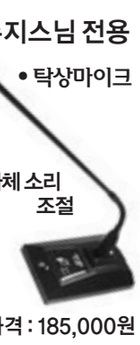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일 주 문



국제선문화체험관 낙성

수암 서울 화계사 주지 스님은 3월 17일 낮 12시 외국인스님들을 위한 시설인 국제선문화체험관 낙성식을 봉행한다.



전국비구니회 정기총회

육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은 3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 전국비구니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답게운동본부' 대표회장에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3월 7일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본부' 대의원총회서 제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불교진흥원 열린강좌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3월 2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불교정신치료'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연구원장에 안성두 교수



(사)한국불교연구원 신임 원장에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제7대 원장에 안성두 교수를 선출했으며,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안성두 신임 한국불교연구원장은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인도학과서 석, 박사 과정을 마쳤다.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 정각원장에 법수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에 법수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동국대 이사장 지광 스님은 3월 7일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정각원장 법수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법수 스님은 지난 2년간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을 맡으면서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신심을 잘 길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수 스님은 "정각원의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불교종립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터널 지난 남북교류 불교계가 뒷받침을"

Interview

신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정부차원 접근 중요하지만
이후 민간교류가 핵심과제
자유왕래 될 때까지 최선

"본부장 소임을 맡자마자 마침 대북특사단이 좋은 결과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남북교류가 이제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도 불교계가 활발한 교류를 펼쳐 뒷받침할 때입니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 3월 6일 임명됐다. 원택 스님은 본지 인터뷰서 몇 년간 단절된 남북교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불교계가 이바지할 것을 강조했다.

원택 스님은 "남북관계 개선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부차원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만 물꼬를 튼 이후부터는 민간교류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 중에서도 종교는 인도적, 문화적 차원의 교류라는 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불교계 교류가 깊어져야 남북이 더욱 평화로울 수 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의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민추본이 추진하는 부처님오신날 남북대표단 교차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남북 자유왕래가 가능해지길 기원했다.

원택 스님은 "지금 세대는 전쟁의 아픔을 잊은, 그리고 잊어야 하는 손자세대다. 이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는 어른세대가 나서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개개인이 단순히 좋지 않은 감정만으로 북한을 대하면 국가가 추구하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곳곳에서 이끌어가는 대북사업에 힘을 보태고 관심을 가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한 민추본의 각종 대북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간 복잡한 정세에도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사업을 살찌우고, 발전시켜 종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열린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편협된 사고에 갇히지 않고 남북이 통합으로 용인하는 불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보며 감명 받았다는 원택 스님은 "선수들이 헤어질 때 흘린 눈물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다"며 "그동안 3.8선 너머로 손가락질하며 켜켜이 쌓인 감정에 서로 형제, 자매였다는 것을 잊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 역시 마음을 열고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때까지 큰마음을 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을 은사로 1972년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제10·13대 중앙종회의원, 겁외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철 스님 선양사업을 펼치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재불사 보살행은 삶의 목표"

재단법인 원광장학회
이사장 지광 스님



"출가한 이유가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재단법인 원광장학회(이사장 지광·사진)가 3월 5일 부산 태고종 원광사 법당에서 제10회 원광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지광 스님은 보살행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원광장학회는 2008년 시작해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지속적인 인재불사를 위해 원광사는 나눔기관으로 2015년 재단법인 원광장학회를 설립했다.

이사장 지광 스님은 "불교는 보살피는 종교이며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종교다.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광장학회는 이날 대학생 5명에게 각 200만원, 중고등학생 13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165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매년 신도들이 봉축과 천도재 등 여러 행사에 동참해 십시일반 올린 보시금과 스님의 원력으로 모은 것이다. 2008년부터 원광장학회가 전달한 장학금은 총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신도들은 지난 2014년 스님의 자비나눔 원력에 동참하며 법당 마당에 '혜명자비약속탑'을 세우고 함께 동참할 것을 서원한 바 있다.

지광 스님은 "매년 신도들이 올린 정성을 이렇게 회향할 수 있어 기쁘다. 불자들이 보시를 올리고, 그 보시를 모아 인재불사로 아름답게 회향되도록 돕고 있다. 선업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보시가 인재불사에 사용되는 것을 지켜보고, 기도에 동참해 신도들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광 스님은 장학 대상인 학생들에게도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며 바르게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광 스님은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자"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룡사, 서초구에 백미 5000kg

동안거 해제 맞아 자비나눔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회주 정우)는 3월 2일 동안거 해제를 기념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자비의 쌀 5,000kg을 서초구에 기탁했다.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많은 양의 자비나눔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대구 대성사, 금불대 수료식

1학년 32명 수료, 2학년 28명 졸업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3월 3일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수료식 및 2018년도 입학식을 경내 서원당 3층에서 개최했다. 졸업식에선 1학년 수료자 32명, 2학년 졸업자 28명이 배출됐으며, 신입생은 60명이 입학했다. 학업우수자 등에게는 천태종 총무원장 신행상과 주지 신행상이 수여됐다. 금강불교대학장 영제 스님은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뜻 깊은 날, 기회의 끈을 놓치지 말고 부처님 품에서 열심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7기 입학

청규 서약과 발원 부처님전에 다짐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학장 지일)에서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에서 제27기 신입생 입학 환영법회를 개최하였다. 본 입학법회에는 2018학년도 신입생 100여명 중 서울지역 거주자 70여명이 동참하였으며, 법사학인으로서의 청규 서약과 발원을 부처님전에 다짐하였다.

윤호섭 기자

본 광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수스님,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가!

성수스님은 진실을 가장한 위선을 벗고 불심으로 참회하라! (2018월 3월 2일자 뉴스렙(NEWSREP)에 부쳐)

우리 이사장님과 몇몇 스님들을 조그만 단칸방에 몰아넣고 그 주위 못 박고 감시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못쓰게 하며 주식도 공급배제 시키고 갖은 나쁜 행동을 한 것과 신도들을 조별로 그룹을 지어 지금까지 한 달여 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갖은 욕설과 인신공격을 통해 인권유린을 한 그 죄는 하늘이 알고 부처님과 팔부성중이 아신다.

현재 상주이신 이사장님 모친 위패를 모실 때도 온갖 폭력을 가하며 영전에 마지 한 불기도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스님의 짓인가?

성진 이사장님은 살아생전에 내원암에 오셔서(2015.12월 말경) 당시 주지스님께 "스승이신 보혜스님께서 상좌에게 물려주는 사자상승을 하지 않고 정법구현을 원하셨던 뜻을 받들어 혜원스님(이금분)께 이사장직을 계승하게 하겠다."고 우리 신도들 앞에서 뜻을 공포하셨다.(2016.02.16. 이사 취임) 뿐만 아니라 수도원 신도들에게도 돌아가신 전에(2016.05.09) 늘 "나와 40년 인연인 혜원스님을 나와 똑같이 예우하고 공경하여 따르라."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스승이신 보혜스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공경하고 받들지는 못할망정 갖은 행패를 일삼고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며 돌아가신 스승과 사형을 욕되게 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참회문(2018. 03. 07. 불교신문)을 지상에 공고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보아 이사장님을 저해하고 획책하는 간교한 처사임을 우리 신도들은 안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성진스님 말씀대로 이사장님을 예우하고 멍석 깔고 석고대죄하고 참회하라. 또한 하루빨리 강제로 스님을 골방으로 몰아넣고 못질하여 사용 못하게 한 이사장실을 개방하고 강탈해간 사무실집기와 직인도용 및 대표자 변경 등을 원상복귀 하라.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은 성수스님이 수도원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임을 부처님과 제불보살님께 천명하며 우리 신도들은 정법구현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공시한다.

불기 2562년(2018) 3월 8일

내원암 신도 : 최명희. 전지호. 김이숙. 최성문. 하철근. 최형호. 박정순. 하상영. 한지원. 김명자 外 / 수도원 사랑회 모임 일동.

봄학기 '초기불전학림' 열린다

초기불전연구원, 김해 · 서울 · 대구 등 각지에서

초기불전연구원이 봄 학기를 맞아 김해, 서울, 대구 등 각지에서 초기불교학림을 운영한다.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김해 장유 보리원에서 제8기 초기불전학림을 연다. 기간은 3월 27일~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재는 〈청정도론 제1권〉이다. 이번 강의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청정도론〉을 깊이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 강의로, 지난해 가을 학기를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051)321-8579

서울에서 준비하는 강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다. 장소는 잠실 불광사 불교교육원이며 3월 14일~5월 30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오전반은 3월 15일~5월 31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의 횟수는 총 12회이며 교재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다. (02)417-2551

대구에서는 〈디가 니까야〉를 주제로 강의가 개최된다. 장소는 대구 관오사이며 4월 9일~6월 25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한다. 강의는 총 11회이며 부처님오신날은 휴강한다. 모든 강의는 지도법사인 각묵 스님이 맡는다. (053)471-664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장 서중호 취임

3월 5일 취임법회 "대구불교 위상 널리 알릴 터"

대구지역 범불교 종단연합체인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 신임회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는 3월 5일 대구 NH컨벤션웨딩서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 · 취임법회에는 대구불교총연합회장이자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인 효광 스님과 천태종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외 연합회 종단 대표 스님,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기관 단체장 등 각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법회서는 대구불교총연합회 연혁소개와 류병선 前신도회장 이임사, 전임 회장단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서중호 신임 신도회장은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주어진 재임 기간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의 규모를 지금보다



대구불교총연합회장 효광 스님(사진 왼쪽)이 서중호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배 이상 넓히고 발전시켜 대구지역 행정기관들에 불교의 위상을 널리 인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중호 신임 신도회장은 현재 아진산업과 우신산업 등 국내외 8개 기업의 대표이사, 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존경받는 기업인 상'과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중견기업인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화엄문도 화합 전통 살려나가자"

구례 화엄사, 화엄문도 합동 추모재 · 신년하례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3월 3일 화엄문장 명선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 등 100여 명의 문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엄문도 합동 추모재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중은 근세 화엄사 중창조인 도강, 도천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에게 다례를 올리고 부도탑 참배를 진행했다.

명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안거가 해제했다. 곳곳이 선방이고 총림이며, 따로 공부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속적인 정진을 강조한 뒤 "우리



는 일불제자로 작게는 용성문중이다. 도강, 도천 스님 법맥을 이어받아 문도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의해 화합문중의 전통을 살려나가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건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애국도량 울려 퍼진 국민 행복 발원

부산 삼광사, 3주간 관음기도로 국운융창 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백양산 자락 삼광사 대중이 일제히 목소리 높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렀다. 삼광사 지관전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찬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울려 퍼진 그들의 기도는 오직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향해 있었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애국불교도량으로 힘차게 도약했다. 삼광사는 정초를 맞아 관음기도 및 신중불공을 지난달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1일간 지관전에서 진행 중이다. 정초기도는 매일 밤 10시~새벽 3시 30분, 불공에 이어 관음기도로 이어진다. 이번 기도 동참 등록자는 3000여 명으로 평균 2000여 대중이 매일 밤 기도에 참석하고 있다.

매년 삼광사는 정초기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취임한 주지 세운 스님은 기도와 신행을 강조했고, 기도 기간을 7일에서 대폭 늘려 21일 동안 철야정진을 이어 갈 것을 밝혔다. 참가자도 2배 이상 늘었으며 개인 소원성취보다는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3월 6일 방문한 기도 현장에서 불자들은 주지 세운 스님의 기도 소리에 맞춰 함께 합장했고 눈을 감았다. 모두 일제히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장엄한 소리가 넓은 지관전을 가득 채웠다. 불자들은 끊임없이 절을 했고 머리가 희끗한 노보살도 피곤한 기색 없이 정진했다.

불자들은 기도 기간에 주지 세운 스님이 직접 이끌어 줘 동참 의지가 더욱 커졌다고 감사해했다. 또한 국가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초맞이 관음 · 신중불공
사부대중 3000여 명 동참
21일 동안 철야정진 이어
"마음자리 넓힌 계기 돼"

안숙이(55 · 부산 당감동) 불자는 "지난해 주지 스님이 오시고 난 뒤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다. 이번 기도 기간에도 스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함께 정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더 힘이 나고 환희심이 난다. 특히 개인보다는 이웃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자신의 됨됨이가 더 커지고 성장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해숙(53 · 부산 기장) 불자는 "기도 후 1주일쯤 지나 남편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며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신장님이 도와주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도공덕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정초를 맞아 국가를 위한 관음 · 신중불공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기도에 동참한 대중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정진하는 모습.

현재 삼광사는 정초기도에 이어 매달 1~3일 정기기도를 진행하고, 특별정진 기도 기간을 정해 1주일간 철야기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주지 세운 스님 "삼광사는 수행기도 도량이다. 천태종 본산 창건 당시부터 수행을 중심축으로 두고 성장했다. 그 본래 역할을 더 강조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할 치유 대안은 오직 불교뿐이다. 수많은 정보를 통해 얻은 불교 가르침은 충분하다. 이제는 실천의 삶으로 사회의 주역이 되고, 365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광사는 3월 7일 지관전에서 삼광한글교실 졸업식을 개최했다. 삼광한글교실은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1992년 천태종 종단차원서 설립된 한글 교실이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지난 2014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정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등록돼 정식 초등학교 졸업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삼광사는 초등학력 인정 과정에 이어 중등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학비는 무료이며 입학 대상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051)808-2126

"학풍진작 · 참회로 佛法 실천"

전북불교대학 30주년
신입생 123명 유치해

전북지역 대표적인 불교전문 교육기관인 전북불교대학이 출산율 급감과 불자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불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3월 4일 완산불교회관 4층 큰법당서 '제31기 불교학과 및 제26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임실 상이암 주지 동효 스님, 곡성 통명사 주지 법중 스님 등 스님들과 반재상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과 불교학과, 법사과 신입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은 전북불교대학은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시민강연회, 초



개교 30주년을 맞은 전북불교대학 신입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학풍진작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법회, 인문학 특강, 보살계, 산사수련회,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을 펼쳐 30년간 꾸준하게 재가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교직원과 동문들의 노력으로 123명의 신입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날 입학한 불교학과 92명과 법사과 31명의 신입생들도 "전북불교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참신한 학풍을 진작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참회와 발원을 통한 실천으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식사에서 "불격(佛格)의 비단옷, 인격(人格)의 홑옷이란 말이 있다. 저부터 불격의 비단옷을 짓는 일에 힘쓰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겠다"며 "여러분들도 내적으로는 허접하면서 겉으로 비단옷을 과시하려는 그 마음에 이별을 고하고, 내적 성찰에 힘을 기울여 삶의 의미를 새기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동효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달력에 '혁명기념일'이라고 적어놓고 성불을 위한 수행이 시작된 날로 기억해달라"면서 "불교대학의 수업을 통해 윤회의 고를 벗어나 참 진리를 찾아 해탈할 때까지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생 51명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은 3월 4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서 불기 2561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과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화엄불교대학 29기 31명, 학림원 24기 20명이 1년 동안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다.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지난 1년간 공부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적 사찰에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는 박두섭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재학기간동안 성실히 학업에 임한 불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전생의 기억이 현생을 지배한다"

전생상담사 모집

옛 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생 상담의 특징은 단지 전생을 체험하는 자체 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이나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면을 이용한 전생 상담 기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일입니다.

20여 년간 5,000여 명의 전생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기법만을 엄선하여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수해 드립니다.

TV 방송에 300여 회 출연한 임재형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개 강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총 5회 과정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교육비 : 50만원 (수련 CD 및 교재 제공)

한국최면과학원 (042)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석교동 주민센터 옆)

신 화 불 사

- 전통한옥 철거, 매입 매매.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조각.
- 25평 요사채. 팔작지붕. 육송재목 상태좋음 (재목만) 기와포함. 4천만원
- **60평 법당, 요사채 (2층 가능)** 상태 A급, 맡배지붕, 저렴함.
- 5층,7층 석탑 (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수익형 기도처 양도가 21억원 (서울) 잔고증명要 2억(보증금) 월 1천만원(세입자 있음)
- 사찰부지 4,800평 (포천) 양도가 15억, 다수의 석물 있음.
- 38평 제실, 법당으로 매우 좋음. 가격 매우 저렴.

010-6545-2020

그외 다수의 매물 있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선과 악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도저히 여읠 수 없는 일이다. 죄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하는 일도 모두 다 이와 같아 스스로 지어 나쁜 세계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 아난분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범패 교육도량

범음범패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정근북(양고장)
송주북 (각단 예불)
사찰 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범음 범패 회원모집

- 기본 6개월 북, 목탁, 요령, 피리, 호적
- 천도재 전문과정 1년 점안, 천도, 구병시식
- 기본사주 1년과정 사주, 작명, 서예

010-8500-0051
법산 합장 (김해)

조선 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9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010-2294-4747

약사보살(4자) 좌대(1자) / 지장보살(3자) 좌대(반자)

모셔가실 분 찾습니다
010-5353-3936

비법전수 사주 강의

3개월 완성(주1회)으로 구성
비법 역학을 공개 강의합니다
장소 : 충남 논산
시외버스터미널옆 2층 /
회비 : 월 50만원
010-6473-1569 남전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신통도인의 신통상담

도통에는 上 中 下가 있다. 上은 보기만 해도 용사가 되고, 中은 은사를 하고, 下는 필사를 한다 하였다. 신통도인에게 상담을 청하여 그 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010-6357-5152
신통도인 육관

참선 강좌

"깨달음의 정수"
마음공부, 화두타파, 명상
공부 같이 하실 분, 검증이 필요하신 분, 명상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심리상담 –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등)
053-652-2714 / 010-9616-2477
묘진사 우송 합장 (대구 내당동 소재)

함께 기도수행 할
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010-8620-4303

사찰에서 지내시면서 수행하실 스님이나 불자님 모십니다
(마산, 50대이하)
055-271-9141

경전, 철학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45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인도해줍니다
010-6536-0120

서울 수도권 큰 사찰에서 비구니 주지스님을 초빙합니다
010-5466-33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마산)
010-5045-3545
010-3597-35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 60세이하)
041-673-8385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분

남해 무량암으로 오신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비는 없습니다.
010-8913-0062 총무스님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월 150만원부터 면담 후 결정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단체접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이메일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지킬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샐때에 한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 법구경 –



원주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토지 700㎡
- 원주시 외곽 운영 잘되고 깨끗함.
- 양도 : 5억 6천만원 (융자가능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사찰안내
- ◎ 위치 : 서울북한산급양도
- ◎ 무허가 건물
- ◎ 건물 : 약 40평
- ◎ 도로근접,숲속,사용료지불
- ◎ 매가 : 5천 5백만원정
- ◎ 위치 : 경기 수도권
- ◎ 부지 : 150평
- ◎ 법당 : 40평,차량진입
- ◎ 요사 : 60평
- ◎ 매가 :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연무대 사찰(급) 안내
- 한옥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토지 400㎡
- 비구니스님추천사찰. 타지방에불사
- 논산 IC근처 교통 편리
- 양도 : 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도심속 작은사찰 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010-7409-0490
02)957-0824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영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도심속 산중 암자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단독 주택 시내가 한눈에 보임
- 방3칸 인법당. 산신각 1동. 넓은 텃밭
- 화장실 2개 .CCTV 유
- 가액 : 8,000만원

010-5628-93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다대포 위치
- 6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주위 대형 병원, 아파트 밀집지역
- 현재 운영중

010-5267-4937
051-266-4937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 그린상가
- 건물 : 1, 2층 전체
- 대지 136.5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 1층 요사채 겸 식당 주차장 완비
- 가액 : 평당 천오백

010-3752-2601

토굴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문백면
- 모든기도 성취 영험도량
- 평수 253평, 2필지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별채 포함합니다
- 가액 : 2억 8천 (융자 1억 2천 8백만) 시세조정가능

010-5496-64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266
- 큰법당 32평, 삼성각 5평, 주지실 24평
- 후원 약 50평, 주차시설, 농업용 저장고
- 가액 : 가격은 절충

010-8523-9919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 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면 갈산리 447번지
- 대지 : 전 343평, 종교용지475평, 임야 507평
- 건평 : 40평 1동
- 방2개,큰거실1개,주방,창고방3개
- 가액 : 5억(절충가능)

010-5403-773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
- 종교부지 570평, 주차장 44평 텃밭 278평, 임법당 32평, 삼성각 10평, 창고 겸 요사채17평
- 가액 : 이억칠천만원(급양도) 정남향

011-369-3859 (스님직통)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네비게이션 전화 033)744-3959번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KT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84-0122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 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7,8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차령산맥 세종 천안 각 20분
- 대지 : 3만 5천평, 건물 4동
- 지방문화재보유한 100년 도량
- 가람 불사금 20억 동참 도반 원함

010-4448-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32평, 창고 화장실 15평
- 총건평 80평 가량, 철골 지붕 강판 기와
- 가액 : 1억 6천 절충가능
- 터밭 별도 450평, 년15만원

010-4726-6496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번지
- 용도 : 주택, 복지사업용, 종교시설, 2차선 도로인접
- 가액 : 864평. 평당 170만원

※ 기도 중 전화 못 받을시 문자 넣어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주인 직거래 부동산 사절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 대지:110평,2층법당29평1층요사채35평 외 약 5평 정도 공양간 시설되었음
- 신도로와 구도로 교차로변(근처) 국민관광지역. 절 앞까지 서울시내 좌석버스 30분간격 운행중
- 가액 : 3억7천만원(융자1억 포함)
-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건물,법당, 사진,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하겠습니다

010-9259-0108번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관내
- 대지 : 125평
- 건물 : 21평
- 가액 : 7,500만원

주 인 직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소방서 앞 (100년 넘은 사찰 대지 187평,종교시설임) 이외 주차공간 넓음
- 법당20평 5년전 신축 불사 하였음 산신각,칠성각,용왕당(9평), 요사채 2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하실분 가격절충)

010-3881-6405

암자(동해)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 (등대. 바다조망)
- 임야 3,349(대지 400평)포함
- 건물 : 5동,약120평(1동80평신축건물)
- 특징:유명한 약수물 있음.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경내 차량진입
- 창건:1945년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은행설정. 2억 안고 1억2천

010-4491-55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266
- 큰법당 32평, 삼성각 5평, 주지실 24평
- 후원 약 50평, 주차시설, 농업용 저장고
- 가액 : 가격은 절충

010-8523-99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010-6222-583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백양산 밑 전망좋은 곳
- 대지 45평
- 4층건물
- 총 92평
- 가액: 5억 5천

010-9881-736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답 1100평 중 대지 300평 법당(대웅전) 25평 요사채 15평 석가모니불
- 기백산 등산로입구 차량 진입가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은행융자 9천만원)

010-3806-3271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 대지 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ㄱ형 본채, 별채(2채)
- 약 70평 (부속건물 포함) 준공일 2012년, 12월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010-7449-2925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안동시길안면사무소와 청송읍사무소 중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근방)
- 사찰터로 좋은 전답 3필지 (약 1,800평)
- 가액 : 10,800만
- 분할가능 : 1필지(약 600평)5000만 2필지(1200평) 9,000만

010-2016-6281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관음사
- 주 소 : 전북 부안군 상서면 도화길 38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無我 말하는 佛者… 실제로는 죽음 가장 겁내”

‘타인 수명보다 내 수명 더 중요한가’ 설문에 스님 72% 무종교인 31% “그렇다”

불자들이 타종교인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빅 싱크’는 2월 28일 불교를 종교로 삼는 불자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흔히 생사(生死)초월과 무아(無我)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불자들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연구결과”라고 보도했다.



‘빅 싱크’가 인용한 연구결과는 1월 미국 아리조나 대학 션 니콜라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인지과학〉에 발표한 논문〈사진〉서 발췌했다. 연구팀은 각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이타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조사 전 ‘불자들이 가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이타성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학자 30인에게 불교교의에 따른 이상적인 답변을 미리 자문받은 상태였다.

조사는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불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남인도의 빌라쿠피(Bylakuppe)와 문고드(Mungod)의 티베트인 망명촌의 일반 재가자와 출가자 수백여 명을 중심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되었다.



생사초월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불자들이 오히려 가장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미얀마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스님.

질문 중에 하나였던 “자기 자신은 연속성과 영속성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사전에 예상한 대로 불교 출가자들의 대답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서양의 경우 종교의 유무를 떠나 연속성을 믿는다는 사람이 대다수였으며, 특히 미국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 그 외의 그룹에선 절반씩 긍정과 부정을 밝혔다.

그런데 “죽음과 자신의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연구팀은 “놀랍게도 불교도, 그것도 출가자들이 가장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설과 이에 대한 훈련이 가장 강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그룹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어서 이타성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약이 있다. 자신이 쓰면 반년의 수명이 늘지만, 타인에게 쓰면 그 사람의 수명이 5년이 늘어난다. 자신에게 쓰겠는가? 타인에게 쓰겠는가?”라는 질문에서 72%의 불교승려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종교가 없는 미국인들의 대답(31.2%)의 두 배가 넘는 응답이다. 공동연구자였던 펜실베니아 대학의 니나 스트로밍거 박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상 가장 예상을 어긋난 결과”라며 연구팀이 받은 충격을 밝혔다.

연구팀은 이 모순에 대하여 “불교는 죽음을 통해 반열반(般涅槃)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영혼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그리스도교 보다 자신의 소실에 대한 감각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육신을 신기루와 같다고 믿고, 수행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결과를 보도한 ‘빅 싱크’는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출가자들의 수행경력과 수행의 심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지적하며 명상에 숙련된 출가자나, 교학을 심도 있게 수학한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2일 일본의 종교관련 인터넷 매체 ‘토카나’ 역시 본 결과를 보도하며 “불교의 교리에서 먼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해탈이나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반박하면서 본 조사결과는 종교적인 교의적 바탕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출가자가 이기적이라는 결과에 대해선 “불교에선 분명히 자기희생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승려가 이타적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스스로 이기적인 것을 알고 솔직히 대답한 것이 출가자로서 옳은 자세”라고 꼬집었다. 또 “연구자들이 예상외의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해서 밝힌 것은 ‘불교의 승려는 무아에 통달한 이타적인 성인군자’라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아직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불교계에서의 반박이나, 뒤따르는 학술적 연구는 발표 되지 않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절에서 온천욕 즐기고 가세요”

일본 벳푸 사찰, 원천 끌어 탕으로 목욕보시



일본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 벳푸(別部)에 소재한 사찰 쵸센지(長泉寺)〈사진〉. 최근 경내의 작은 온천탕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3월 1일 일본의 ‘오리콘 뉴스’가 전했다.

특색 있는 7곳의 원천을 관광하는 코스인 ‘지옥순례’는 일본 국내외에서 유명한 관광코스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 간헐천으로 유명한 타츠마키 지옥의 물을 끌어와 탕을 만든 쵸센지는 자그마치 9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본래는 지금의 소재지 보다 좀 더 위의 산에 있었지만 여러 차례 전쟁과 재난으로 현재지로 옮겨왔다.

온천이 경내에 생기게 된 것은 약 50년 전 전대 주지스님 대의 일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던 공동온천이 관리인의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자 절에서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이어 받으면서 욕탕을 경내에 세우게 된 것. 前주지 아키노리 스님은 “절 인근의 병원에서 참배하러온 환자분이 ‘절에 온천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걸 듣고 온천을 하기로 결심다”고 말했다.

욕탕의 위치를 이전하면서 본래 원천을 끌어 올 수 없었기에 절 인근의 타츠마키 지옥의 물을 끌어와 온천이 생겼다고 한다. 욕탕의 욕조는 모두 절의 대중들이 손수 만들고 욕탕의 이름을 ‘야쿠시노 유(藥師の湯)’라고 붙였다. 절의 본존인 약사여래의 가피로 탕에 들어간 모든 이가 건강하길 기원하는 이름이다.

탕에 들어갈 땐 주지스님이나 욕탕의 청소를 맡은 소임자에게 탕을 쓰겠다고 말하고 이름과 주소지를 방명록에 쓴 후 알아서 보시금을 내면 된다. 입욕료는 무료이지만 자유롭게 보시금을 받는 것은 탕을 처음 만든 이래로 내려온 전통이다.

대중 스님들이 손수 설계하고 만든 작은 온천탕이라 샤워시설도, 수도꼭지도 없는 작은 탕. 욕탕도 하나뿐이라 사용 시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탕에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원천을 그대로 끌어와 쓰는 것이라 계절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 탕의 온도도 자주 변한다. 따로 냉수를 연결해 두지 않았기에 탕이 뜨거우면 대야에 탕의 물을 받아 식혀서 다시 탕에 부어 식혀야 하는 등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만 유명한 원천에 직접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점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사찰음식 대유행…간단한 절밥 인기

건강한 음식으로 간소하게 차려먹는 식사 유행



일본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절밥’.

한 상의 사찰 요리가 아닌 밥과 반찬 같은 하나의 메뉴로 구성된 ‘절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T-SITE’는 3월 8일 간소화된 사찰요리 ‘절밥’의 인기몰이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은 사찰음식을 한 상 차림의 음식으로, 절밥을 간소한 식사로 규정한다.

일본서 근 몇 년 사이에 사찰요리와 절밥이 인기 테마로 자리 잡았다. 건강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크게 유행 중이며 이를 테마로 한 책이나 만화, 잡지 등이 차례로 발간되고 있다. 유명 TV프로그램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질 정도다. 또한 작년 도쿄의 모 사찰에서는 간단한 사찰음식을 제공하는 ‘절 카페’가 생기면서 많은 여성손님들이 붐비기도 했다.

‘T-SITE’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절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격식과 규칙을 지켜가며 먹어야하는 사찰요리와는 달리 스님들이 일상에서 먹는 식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절밥’은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챙기면서도,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때는 일부 육류와 어패류를 허용하는 융통성이 있어, 가정의 식탁에 쉽게 오를 수 있다.

이 절밥의 레시피를 최근 간행한 도쿄의 고찰 콘고인(金剛院) 주지 노노베 리코 스님은 “절밥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조미료를 최소한으로 하여 식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린다. 자극적이지 않고, 직접 손을 직접 써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리코 스님은 “맛이 아닌 식감과 향, 색깔 등 모든 감각을 느끼며 먹을 수 있는 것이 절밥이다. 배가 가득차지 않게, 염분과 당분, 기름을 적게 넣어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고, 자극적인 식재료를 피한다. 계량스푼이나 정량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게 손과 손가락으로 직접 요리를 만들기에 요리를 만들고, 먹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다”고 절밥의 핵심을 소개하며 “식사는 우리들의 몸 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 절밥은 먹고 느끼는끼는 것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식사다”고 절밥이 널리 보급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강좌수강! 천국공개강의 알리미 사이트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13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14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니버셜 타 로	차두성	3월14일(수)	10-12시 14-16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장호철	3월15일(목)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18일(일)	12-14시			
마르세유 정통타로	조미정	3월16일(금)	14-16시 17-19시	2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
LED전구 국산인증(정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연등승하강 장치
완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사마타 · 위빠사나도 생각으로 한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1. 자비선이란 무엇인가?

3) 생각의 힘

(2) 뇌파와 수행단계

생각의 힘에 의해 나타나는 뇌파는 수행경계와 관련이 있다. 생각의 힘은 마음 작용이므로 생각의 힘과 뇌파는 곧 마음과 뇌가 상호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마음과 생명학술대회'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은 "나는 마음 자체, 그리고 미묘한 사고과정이 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뇌가 정신에 미치는 작용뿐 아니라 정신이 뇌에 미치는 작용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뇌의 물리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음은 뇌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수행, 학습 등 많은 방법에 의해 그 신경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경험은 순간적이고 주관적 영향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경험은 건강, 기능 그리고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뇌 조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뇌의 물리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뇌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달라이라마, 위스콘신 과학자 2001년)

마음과 뇌파의 반응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대체로 5가지의 뇌파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베타파(초당 12~30Hz 정도)는 빠른 빈도수를 갖는 뇌파로써, 강하고 분석적인 사고와 관련된다. 대체로 눈을 뜨고 생각하며 활동하는 동안 나타나는 뇌파이다. 정상적 인지 기능이나 불안과 흥분 또는 긴장과 관련 있는 각성 상태를 지칭하는 뇌파이다. 그리고 SMR (Sensory Motor Cortex Rhythm-12~15Hz로 뇌의 감각운동피질에서 관찰) 뇌파는 낮은 베타파이다. 뇌의 뉴런 집단을 강화시킴으로써 생리적으로 몸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의 증가를 의미한다. 호흡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의 긴장 정도가 낮아지는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알파파(초당 8~12Hz 정도)는 느리면서 규칙적인 주파수를 갖는데, 이완상태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깨어 있지만 편안한 자각 상태와 관련된다. 스트레스, 강박증이 완화되어 일상에서 고요함과 안정감이 있는 마음상태이다.

셋째, 세타파(초당 5~8Hz 정도)는 알파파보다도 더 느린 주파수이다. 보통 꿈꾸는 상태에서만 생성되며 강력한 창조성의 상태에서도 이따금 나타난다. 세타파는 이완과 수면 사이에 있는 상태를 반영한다. 세타파의 상태에서 선의식 상태로 무의식적인 자료들을 다시 기억하거나 재경험한다. 자신에 대한 자각과 통찰이 증가하여 새로운 창의적 생각이나 문제해결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는 경험하게 된다.

넷째, 델타파(초당 0.1~4Hz)는 느리고 불규칙적이다. 수면상태의 뇌파이다. 델타파는 보통 꿈 없는 깊은 잠 상태에서만 생성된다.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의 델타파의 비율 증가는 신체적으로 성장호르몬 분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몸의 치유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기쁨, 몸 사라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 감마파(초당 30~50Hz)는 빠른 파장이다.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신경회로들을 엮어가거나, 서로 상이한 감각적 특질들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하나의 물체를 감지해내는 뇌파이다. 또는 애매모호한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난 후 '아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잘 나타나는 뇌파라고도 한다. 추리, 판단 등의 고도의 깊은 집중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자비심을 가질 때 나타난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5가지의 뇌파는 명상체험에서도 나타난다. 신수심법(身受心法)을 관찰할 때 뇌파는 명상체험의 수준을 나타낸다. 관찰 대상으로 신수심법을 〈염처경(念處經)〉에서는 몸(身)은 자아의 의지처인 대상이고, 감각(受)은 자아가 향수(享受)하는 대상이며, 마음(心)은 자아의 자체인 대상이고, 현상(法)은 자아의 오염과 청정의 대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관찰하라고 설한다.

그래서 신수심법의 관찰을 원효 스님은 '자아 없음' 즉 무아의 체험에 있음을 〈중변분별론소(中邊分別論疏)〉에서 설하고 있다. 명상에서 베타파와 알파파는 몸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뇌파이다. 자아의 의지처인 몸의 현상을 무상관찰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의식은 각성되는데 이때 무상관찰을 통해 나타나는 몸 사라짐의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자아 없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친 무아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몸의 감각은 존재한다. 이 몸의 감각이 무상임을 알아차리는 관찰에 의해 의식이 깨어나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베타파와 알파파는 잠에서 깨어나 잠들기 전까지 의식이 깨어 있는 동정일여(動靜一如)와 관련 있다.

명상서 느낀 세타 · 델타 · 감마파
잠과 무관하게 의식 깨어있어
생각 없이 바로 아는 정념으로
망념 지워내고 지혜 체득해야

명상 상태의 전형적인 뇌파가 세타파이다. 세타파의 경우는 기억 등의 뇌 기능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세타파의 리듬은 해마의 신경회로를 유연하게 만들고, 뇌를 감수성이 풍부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명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명상을 하지 않을 때도 세타파를 나타낸다. 많은 명상가들은 외부로 빼앗긴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 내부로 향해 초점을 옮기기만 해도 세타파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도 통찰이나 직관,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세타파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세타파는 이완과 수면 사이에 있는 상태를 반영하지만 명상 중에서 몸이 없고 느낌만 있는 상태에서는 몸에서 마음의 정묘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세타파의 의식은 거친 마음(번뇌가 많은)의 상태에서 번뇌가 그만큼 사라진 좀 더 미세한 마음상태이다. 주객이 하나 된 상태인 타성일편의 삼매를 이루는 명상현상이다. 그래서 꿈속 상태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몽중일여(夢中一如)와 관련이 있다.

델타파는 대부분 꿈 없는 깊은 잠 상태에서만 체험한다. 그러나 명상 중에 나타나는 델타파의 명상의식은 꿈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깨어 있는 의식 상태인 숙면일여(熟眠一如)와 관련이 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미세한 의식상태이다. 의식이 미세해질수록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텅 비어 있으면서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空寂靈知), 또는 아주 순수하게 주시하는 상태와 공성이라는 마음의 근원적인 영역과 연관된다.

감마파는 명상을 통해 공성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주객과 중생과 부처가 본래 평등하다는 이해가 생기면 나타나는 뇌파이다. 그래서 생명 있는, 지각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자비희사(慈悲喜捨)의 한량없는 마음을 닦으면 나타나게 된다.

(3) 명상수행은 생각으로

한마디로 명상수행은 생각으로 한다. 집중명상인 사마타와 분석명상인 위빠사나도 생각으로 한다. 명상뇌파를 발생시키는 생각에는 염(念) · 상(想) · 사(思)의 3종류가 있다. 생각 염(念)을 보면 우리는 보통 망념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망념, 이것은 허망할 망자를 써서 허망한 생각, 잘못된 기억이라는 것이다. 상(想)은 망상,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다. 사(思)는 업(業)이다. 사는 조작하는 심리로 업인 것이다. 조작하는 심리는 없던 것을 만드는 생각이다. 만든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상은 과거의 것으로 기억의 뜻이 있다. 염은 현재이다. 이 염에 의해서 눈앞의 대상에 집중하는 직접인식인 직관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생각을 명상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 생각은 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명상으로 될 때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이 된다.

첫째, 염은 정념이 된다. 정념은 빨리어로 사티(sati)라고 한다. 사티는 기억, 앎 그리고 정신차림의 뜻이 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 의식이 각성되는데 그때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념을 알아차림, 마음챙김으로 번역한다. 정념은 눈앞의 대상을 즉각 아는 앎이다. 물건을 손으로 만지면 물건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즉각 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아는 것이 직접인식이며 정념이다. 이 정념으로 망념을 없앤다. 즉각 알기 때문에 의미부여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거나 다른 것과 결부시킬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아는 것이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아 없애려고 하는 의도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즉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직접인식이다. 이 알아차림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즉각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도 머물지 않음을 즉각 알게 하여 궁극으로는 생멸이 없는 열반을 깨닫고 체득하게 한다. 이것이 직접인식의 직관이며 위빠사나 지혜이다. 모두 정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접촉에 의한 현상을 잘 알아차릴 때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기억만으로 존재하나 그 기억함은 현재이며 미래는 오지 않아 없어 미래를 추상하는 그 추상도 현재이고 그 현재조차도 머물지 않으므로 의식은 현재 이 순간순간 늘 깨어 있네.

알아차림이 약하거나 놓칠 때 엉뚱한 길로 감을 아는 것이 정지(正知)요, 바르게 아는 앎을 의지하여 잘못을 다스릴 때 다시 바르게 가게 되니 이것이 대치(對治)이다.

모든 것 불이(不二)임을 바르게 아는 정견에 의지하여 느끼려고 하는지,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려고 하는지, 의미부여 하고 있는지, 다른 것과 결부시키고 있는지, 억지로 조작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서, 혹 없애려고 하는지 알아차려서 말과 생각의 가면에서 벗어나 연기실상 드러나 지혜의 꽃 발화하니 모양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음속 깊이깊이 숨어 있는 과거의 해로운 인연 그 트라우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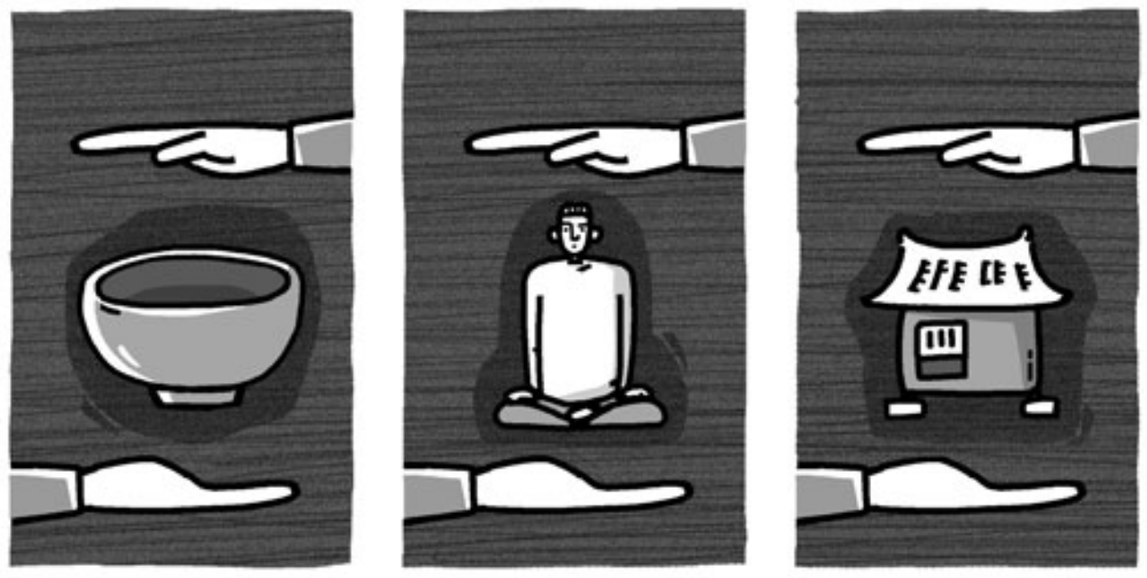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우리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 정법은 실행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오늘 이렇게 몇 분 안 되시지마는, 한 분이면 어떻고 두 분이면 어떻습니까. 이 도리를 공부하는 데에 옛날에 원효 대사 또는 부처님께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이 있어도, 길을 가다가도 같이 앉아서 설법을 하시곤 하셨다는데 나야 뭐, 구족하죠. 허허허. 설법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불교는 법당이나 사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부처는 계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배우는 분들에게는 왜 이것을 꼭 배워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떡이나 놓고 밥이나 놓고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설하실 때에 한 번도 쉼이 없이 설하셨으며 49년을 설할 때 무엇을 가르쳐 주셨던가. "너희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첫째 문제가 전생과 후생이 한데 함락이 돼야만이 너희가 그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하고, 함락이 돼서 견성을 해 가지고 바로 자기 전생과 지금 후생이 같이 한데 혼합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진짜 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생이자 전심! 전체 전, 전신이죠. 전신, 전생, 전심. 이것이 바로 내가 나기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전생, 전심, 전신. 몸뚱이 전신. 그렇게 해서 삼신이 같이 지금, 지금 후생과 더불어 같이 해야만이 나를 이끌어 가는 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어저께에 우리가 했던 것이 전생이 한 일이고 오늘 하는 일이 후생이 하는 일이라면 내일 하는 것도 후생이 하는 일이요, 모두가 이 한 생이 전생도 되고 후생도 되고 현생도 됩니다. 그런데 전생이자 현생이자 미래, 후생 일, 이 삼생을 말입니다, 삼심으로다 모아서 삼신이 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꺼번에 생활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저께는 생각도 안 하고 내일도 생각 안 하고 오늘도 생각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어떡하든지 벌이해서 먹고사는 생각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먹는 대로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내 전생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믿는 겁니다. '주인공!' 하면 삼심, 삼생, 삼신이 다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기 주인공을 믿으라는데도, 자기 전생을 믿으라는데도 왜 안 믿습니까. 전생이 바로 전생에 있는 게 아니라, 접때도 얘기했지만 수박 속에 수박씨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박 겉이라면 수박씨는 이 겉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수박씨가 바로 전생이라면 지금 현생의 내가 그 전생을 믿어야 할 게 아닙니까? 바로 그 전생이 없다면 내가 없는 겁니다. 아주 없는 겁니다. 지금도 불가에서 모두 안락사라고 하는데 그 안락사라는 그 뜻이 뭐냐. 이 몸의, 전생의 혼을 꺼내면 이건 송장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의식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송장이 된다. 그런데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전생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전심을 믿지 않고 항상 남의 말만 듣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꾸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의 얘기를 듣거나 이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잘되는 거 못되는 걸 떠나서 내가 주장하는 생각으로 그냥 나가면 그게 법이다 이겁니다. 남이 잘됐다거나 못됐다거나 너는 나쁘다, 너는 좋다 이런 걸 다 떨쳐 버리고, 망상에 그냥 개입하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꿈을 꿔서 나쁜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야! 나쁜 생각이 왜 들어? 내가 모든 좋은 생각을 하면 좋게 돌아지는데.' 하고선 좋은 생각을 해서 거기 탁 맡겨 놓으면 좋게 그냥 돌아가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어쩌나.' 하곤 그냥 그럭하면 그렇게 일이 돌아와 닥쳐! 그래서 한 생각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얘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딴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이익을 보라는 거고, 여러분의 깨달음을 가져오라는 거고,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라는 거고 가정을 보존하라는 거고…. 자식들을 이끌어 가고, 위로는 부모의 묵은 빚을 갚고 은혜를 갚고 자식들에게 햇빛을 주라는 것은, 내가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한테도 능력의 그 빛이 거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기르지 않고는 자식들이 뿌리가 깊게 박히고 건전하고 건실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혈통이요, 그 핏줄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과 그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혈통과 피 전체가 전부 바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여러분의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뭉쳐진 업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게, 악이고 선이고 나쁜 거고 다, 화내고 뭐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전자의 과거에 살 때에 인연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건전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건전치 못하고 이리 왕 저리 왕,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서 방탕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제재해 나가려면 내 마음이 나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둘째는 다스려 가면서 여기다가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업 선업을 다 지닌 인과로서 이렇게 뭉쳐진 이 참, 개수로 따질 수가 없이 많은 그 의식들이 여기에 지금 수효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습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모습과 의식, 생명 그것들이 모두, 그 많은 생명들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그랬지만 남뿐이 아니라, 다리가 아파서 내가 걷지 못한다 이럴 때 '야! 한마음 주인공 심부름을 하는데 아니, 이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탁 맡겨 놓고 그렇게 하면 벌써 이 속에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서 이 다리가 금방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참, 아주 그게 진실하고 아주 근면하고 건실한 생각이죠. 다리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아주 자세히 알아 둬야 할 거는, 인연에 따라서 여기 뭉친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분산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대가 흩어져서 없어지면 그 의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차원대로 그 의식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전부 지네다 독사다 개구리다 뭐, 두꺼비다 벌레다 지렁이다 하고 수많은 것들로 나갑니다. 즉 말하자면 질척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이게 사생입니다, 사생! 사생으로 전부 나가는데, 어떤 것이 될지 그거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산 것이 그대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원자에서 입자가 되고 입자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에서 화해 가지고 그냥 수만 개씩 나가듯이, 쓰레기통에서 수만 개가 우르르르 생명이 생기듯 그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어떤 거는 지네가 되고 어떤 거는 지렁이가 되고 어떤 거는 독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나갑니다. 사생이 사는 게 다 우리 인간 사는 거와 똑같이 비유가 됩니다. 어떤 거는 아프지 않습니까? 벌레라고 밟으면 안 아픕니까? 우리 인간은 또 밟히면 안 아픕니까? 모두가 아프고 고통이고 고입니다.

요새 내가 여기 와서 허리가 아파 보니까, 나 그렇게 허리 아픈 거 처음입니다. 허리가 아파 보니까 야 참,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런데 참 난감합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허! 내가 여기 조금 더 있으라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그러고서는 껄껄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난 더 있다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내가 갔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일이! 우리 회장님은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허허. 아 글쎄, 갔더라면 되올 수도 없고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끌고 다니는 참자기는 참 일등이로구나.' 그럭하고 나니까 허리가 일어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뚱이를 누가 끌고 다닙니까? 예?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보세요. 이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해도 16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6억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의 의식 속에서 남을 탓

☞ A18면으로 계속

제12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1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주민등록 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3매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 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남 · 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내가 능력을 길러야 그 능력의 빛이 자식들한테까지 가요

☞ A17면에서 계속

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생기고 속상한 생각도 생기고 뭐, 강도질할 생각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기죠. 남에게 약을 먹여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다 나는데 거기에 말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려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죽어서 사대가 흩어지면 수많은 구더기가 헤아릴 수 없이 생기듯이, 그냥 거기서 지네도 되고 독사도 되고 별거 다 됩니다, 그게 흩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의 마음 차원대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이라는 게 뭐냐? 이 흙 속에서 벌레로 나서 다시 탄생 못하는 것이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독사지옥이 뭐냐? 독사가 돼 가지고 다시는 다른 모습으로다가 화하지 못하는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딴 데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천당도 있고, 이 자리에서 승천도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지옥도 있고, 바로 독사지옥도 여기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독사지옥이 돼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독사가 되면 독사가 되는 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습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독사 엄마, 아빠가 새끼들을 오물오물하게 낳아 놓으면 그 엄마 아빠를 산 채로 뜯어 먹고 이 새끼는 삽니다. 자랍니다, 그렇게 무섭게. 그러기에 독사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까맣게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죽어서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 쓴 대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여러분이 카세트 틀어 보시죠. 카세트를 틀어 보시고는 거기다가 다른 노래를 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넣으면 그 앞서 노래가 없어지죠. 그와 같이 내 전자의 과거의 업이 있다면 그렇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으면 앞서 게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선의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자기를 돌보는 보현신이 됩니다, 전부. 보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는데도 이거를 모르고 말입니다, 그저 여기 오시면 무슨, 그냥 벌어다 떼돈을 갖다가 여기 주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다 갖다 여기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그냥 모조리 잡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와서 그저 서로 뭐를 이렇게 묻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책도 좀 보다가 모르면 서로 문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증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밥 먹어 주지도 못하죠. 그와 같이 대신해 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죽어 주는 것도 없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똥 눠 주는 것도 없고 대신 자 주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그 길이 바로 무상한 길이죠. 무상한 길이라고 해서 허망한 길이 아니라 무상한 길입니다. 허망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끝도 없고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둥근 이 진리 속에서 그대로 쳇바퀴 돌듯 흘러 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고덩어리를 짊어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야만 됩니까? 이 고를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를 막론해 놓고, 늙고 젊고를 막론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설법해 주는 그런 중들도 드뭅니다. 그저 목탁이나 쳐 주고 염불이나 해 줄 생각이나 하고 환갑 잔치 뭐, 저거 해서 돈 얼마 얼마 청해선 계모아 가지고 구경들이나 다니고 그러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 오늘도 수차에 전화가 왔는데, 서울에서, 뉴욕에서, L.A.에서, 뭐 사방 군데에서 어디 있는 데를 찾아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본 예는 없습니다. 왜? 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그 길이 바로 무상한 길이죠.**
> **무상한 길이라고 해서 허망한 길이 아니라 무상한 길입니다.**
> **허망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은, 지금은 듣기만 하고 그러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둘이 아닌 까닭은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가 진화되면서 야, 짐승이 됐으면 짐승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짐승의 어미가 되기도 하고 아비가 되기도 하고 친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꽁지 떨어진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꽁지 떨어진 자리 있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까지 진화돼서 예까지 오도록, 자식 안 돼 본 예가 없고 부모 안 돼 본 예가 없고 형제 안 돼 본 예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내 부모냐, 어떤 것이 내 자식이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나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야! 어떻게 남이 아픈 거를 보고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나가 다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난 안 그렇습니다. 나만 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공부 하는 중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도님들이야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저거 한 예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바로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자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당에 와서만 말을 잘해야 하고 또 생각을 잘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변소간에 앉아서라도 또는 집의 안방에서라도, 일을 하면서라도, 나가서 작업을 하면서라도 '아하! 지금 내 영원한 이 한마음의 주인공이 아니었더라면', 즉 말하자면 이 속의 생명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껍데기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러니 '한마음의 주인공 그 자체가 아니었더라면', '일심이 아니었더라면', 한마음의 일심이거든, 이게 전체. 그러니까 '그 한마음의 일심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다니나. 감사하구나. 오늘도 우리 식구를 이끌어 주고 이러는 거는 한마음의 주인공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고 다니시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믿으랍니까, 허공을 믿으랍니까, 형상을 믿으랍니까, 고깃덩어리를 믿으랍니까? 자기 전생의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 주인공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도 끌고 다니는. 끌고 다니기만 합니까?

우리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 정법은 뭐냐? 실행입니다. 실천과 실행! 실천, 실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주인공!' 하고 모두 실험을 해 보세요. 내 가정에 어떠한 거, 내 자식을 위한다든가 내 부모를 위한다든가, 내 몸을 생각한다든가 뭐, 어디 아프다든가, 일이 안된다든가 무슨 재판이 걸렸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언제 어느 때 앞에 닥칠지도 모르거든요. 여기는 또 차를 타고 다니니 그것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이렇게 한 번 실험을 해 보고 실천을 해 보는 데에 아주 목적이 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 없이 자기가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한테, 자기 가정에서 오는 문제를 실험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크게 합니다. 딴 사람은 일요일 날 가게를 봐야 하니까 일요일 날도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설법할 때 한두 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더니 "여보게! 한두 시간 문 닫았다고 해서, 한두 시간 더 팔아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 둘이 문 닫아 놓고 가세." 그래서 인제 빠지지 않고 법회 날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 닫고 와서 설법을 듣고 가는 날은 문 닫지 않았을 때보다 곱을 더 판다 이거야. 두 시간 비웠던 것보다 곱을 판다 이겁니다. 이렇게 실천과 실행을 하고 체험을 하고 들어가는 데는 그냥 뭐, 감탄합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데 알래스카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알래스카가 개발될 것도 없고 앞으로 여기야 뭐, 만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달리 해 보세요. 이 생활 지금 돌아가는 현상만 보고 끄달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시면서 나간다면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이건 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안돼.' 안되긴 뭐가 안돼요? 아니, 자기가 사량으로 안된다는 건 말이 안 돼. '허허, 이건 모든 게 전생에 바로 내가 살던 내 영혼의 근본이 한마음이 돼서 전부 나가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무찌르고 나가는 거야. 마음이라는 게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칼을 뺐으면 드는 거지. 그런데 무슨 뭐가 어떠니 뭐가 어때서 못사느니 뭐가 어때서 안되느니 이러고는 야단들입니다, 응?

그래서 아프면 자기가 병원 의사가 되라 이겁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알래스카에 집을 지니고 이렇게 여러분이 단 한 명이 있다 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아프면 바로 이 주인공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심부름하는데, 즉 말하자면 여러분 가정에 오븐이 없으면 데워 먹을 수도 없죠? 하하하…. 여러분 몸뚱이가 없으면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사랑하고.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여러분이 바로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가난하면 관세음이 되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되고, 내가 먼 길을 떠나게 되면 바로 지신이 되고, 또 배를 타고 멀리 갈 때는 용신이 되라 이겁니다.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어느 때 어딜 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데로 승천하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좋습니다. 죽었을 때도 '야! 너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주인공 한마음으로서 모든 그 마음이 한데 모여서 승천해라.' 이러면 승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장이 되는 겁니다, 또. 순간순간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의 딸이 될 수 있고 남의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이름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 이름 많은 것대로 여러분은 지금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게 행해지는 겁니다, 순간순간 바뀌지면서.

이렇게 이거는 돈을 줘도, 은과 금을 줘도 사지 못하는 도리거늘, 어찌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돈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간을 빼먹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이 중요한 시간을, 요 시간에 돈을 조금 더 벌면 뭘 하고 돈을 조금 덜 벌면 뭘 하느냐 이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 간 데 없이 살아나가면서 구르는데 여러분은 지금 가지가지 가지가 많고 뿌리가 있습니다. 이파리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로는 자기를 낳아 주고 길러 주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항상 이 도리를 공부해서 칠월 칠석이면 생각한 번만 해도 천도가 되게끔 하고 백중이면 백중대로 생각을 해서 그 묵은 빚을 갚고, 팔월 추석이나 이런 때도 꼭 자기가 뭐를 많이 차려 놓고 해서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촛불을 하나 켜 놓고 내가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향 한 개비를 피워 놓더라도, 내가 아주 깊은 생각으로 깊이 절을 일 배만 하더라도, 일 배만 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하더라도 다 은혜를 갚고 또 자식들한테도 베풀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몸뚱이만 귀하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나무 심어 놓은 거 아주 거죽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데는 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공부를 하려고 사방에서 야단들인데, 알래스카는 알래스카대로 이렇게 오면 한가한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서 부르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내 사랑, 여기도 내 몸, 여기도 바로 내 자리, 어디든 다 한자리. 내가 정말이지, 하다못해 김치, 국, 나물거리 또는 반찬을 해 가지고 오시는 그거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그 음식을 먹어서 맛이 아닙니다. 우리 중들이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할 때도, 나물 뜯어다가 깡통에 다 삶아서 소금 뿌려서 날콩 몇 알갱이 거기 넣어서 부황 나지 말라고 그렇게 끓여서 먹고들 한때를 지냈는데, 무슨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먹고 살 양으로 내가 그렇게 가져오는 걸 저거 하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은혜가 태산 같은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거를 그렇게 알뜰히 해서 가져오시겠습니까?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공짜를 바라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3월 2일 알래스카 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 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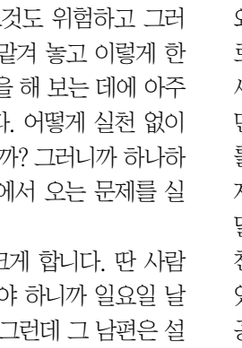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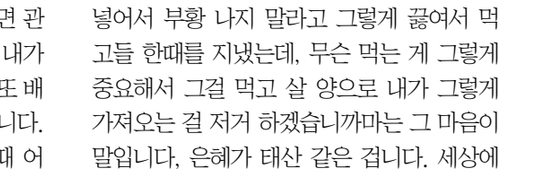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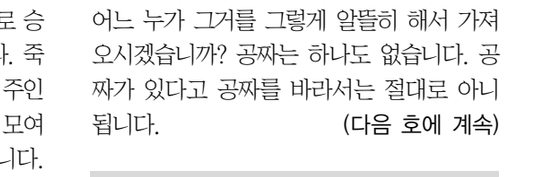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 현불 논단 |

명상시대에 필요한 것들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美 마음산업 규모 10억$ 이상
국내 기업들 명상산업 확산 중
바야흐로 '명상시대'가 도래했다

묵상으로 명상 보급하는 가톨릭
KAIST, 명상과학연구소 설립해
의학계는 명상의학회 출범하기도

불교도 '명상시대'에 대응나서야
매일 2시간 명상 등 마음 되잡는
범불교적 '잠시 멈춤' 캠페인 제안
훈련된 전문 지도사 양성도 시급

'gPause: 명상하는 창업가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구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명상 및 네트워킹 모임의 명칭이다. 구글에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차드 멍 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국내에서도 2015년 7월부터 매월 진행되고 있다.

명상을 '산업'의 측면에서 분석한 포춘지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 이후 미국에서만 한 해 명상과 마음챙김 관련 산업 규모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천억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명상은 창의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포브스의 최근 기사와 맥을 같이 한다.

국내의 기업형 명상의 확산도 눈에 띈다. 힐링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명상 및 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등이 그 중심에 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명상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묵상과 관상이라는 틀로 명상을 구조화하고 보급하고 있는 가톨릭을 비롯하여, 명상과학연구소를 설립한 KAIST, 그리고 대한명상의학회를 출범시킨 의학계 등, 명상 연구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환경적 변화에 발맞춰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가까이 다가온 명상의 시대를 맞아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본다.

먼저 '잠시 멈춤 캠페인'이 필요하다. 현재 원오 극근선사의 〈원오불과선사어록〉에 나오는 좌일주칠(坐一走七)을 기반으로 하루 2시간 명상하고 나머지 하루 일과를 그 힘으로 사는 모임도 있고, 주말에 명상한 힘으로 주중을 사는 좌말주중(坐末走中)모임도 있다. 이를 일반화하여 하루 세 번 3초만이라도 같은 시간에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잠깐 명상을 해보자는 것이다. 잠시 멈춤을 통해 자신의 지금을 확인하고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던 마음을 잡다보면 자기자리를 벗어나는 일탈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 명상은 어려운 것이라는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다음으로 훈련된 '명상지도사 1만 명'이 필요하다.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시군구 아래에 있는 220개 읍과 1193개면과 2089개동에 최소 3~4명은 배치되어야 비로소 명상이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애명상, 수식관 등의 기초적인 명상에서부터 사마타, 위빠사나 그리고 염불명상과 화두명상에 이르는 다양한 명상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집중 교육과 수련을 통해 꾸준히 양성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 명상지도사 천명도 함께 양성해야 한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가슴앓이하는 젊은 대중들의 마음의 상처를 토닥여주기에 적합한 이들은 바로 또래 명상가들이다. 같이 호흡하고 함께 집중하다보면 청년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모아질 것이다. 명상을 통한 지혜계발을 통해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은 명상공간들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도심 곳곳의 대중교통 정류장 근처에 작은 명상 장소를 만들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작은 공간이지만 확실히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명상지도사가 배치되어 안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의 숨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준비를 통해 명상시대를 대비했을 때, 명상은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하는 우리 삶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독자마당

보리쌀과 대승불교

손병욱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로 자부한다. 앞으로 한국불교가 명실상부한 대승불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핵심인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제대로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 일환으로 보리, 그것도 작물로서의 보리에 주목하여 이와 자연스럽게 한 세트로 연상되는 일련의 용어군(用語群)인 '보리밭-보리-보리쌀'을 대승불교와 관련시켜서 그 의미를 한 번 탐색해 보려고 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긴 시간 동안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혹한의 밭농사 지대에서 반농 · 반유목(半農半遊牧) 생활을 영위했고 이때 보리쌀을 주곡(主穀)으로 삼은 역사가 있었다. 당시 대승불교 전래에 따라 이들은 깨달음을 지칭하는 핵심적인 용어인 '보리'를 그대로 작물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깨달음으로서의 보리를 작물로서의 보리와 연결시킨 흔적은 신라 진흥왕 이름에도 남아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흥왕은 본 이름이 삼맥종(三麥宗)이었다. 불교의 '삼먁삼보리'를 염두해 음을 최대한 취하여 한문으로 표기한 듯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삼맥종에서 '보리 맥' 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삼맥종으로 표기하면서 이것이 '삼먁' 뿐 아니라 '삼보리'임을 동시에 나타내려는 의도를 지녔던 것이다. 삼맥(三麥)이라는 말은 삼먁삼보리, 나아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의미를 지니는 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라에 불교 전래시 신라인들은 보리와 삼보리를 구분해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보리를 얻으면 깨달은 보살인 보살마하살이 되지만, 삼먁삼보리를 얻으면 이것은 성불(成佛)한 부처의 경지라고 여겼다.

보리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늦가을 씨를 뿌린 보리밭에서 보리 싹이 움터서 한겨울을 넘긴 뒤에 보리가 익어서 낟알을 거두고, 이후 이것을 도정(搗精)하여 한 톨의 보리쌀을 얻는 과정은 대승보살도인 것이다.

보리밭이란 선지식의 도량을 가리킨다. 보리란 보리 싹, 곧 '보리심의 새싹'으로서 수행자를 가리킨다. 수확물인 보리의 낟알을 도정하여 한 톨의 보리쌀을 얻는다함은 수행자가 선지식의 도량에서 모진 인고의 노력을 다해 깨달음의 성취를 이룬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불교가 보살마하살을 '보리쌀'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부터 재가불자 중 여성신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오용(誤用)되어 온 '보살' 대신 이 말을 사용했으면 한다. 보리쌀은 보살과 마찬가지로 보리살타(bodhisattva)의 준말이다. 그러면서 대승불교의 정신이 배여 있는 보리밭-보리라는 용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선지식과 도반이 있는 도량인 보리밭에서 신행(信行) 곧 신해행증(信解行證)으로 보리심을 키워서 깨달음의 결실을 얻은 이가 곧 '보리쌀'이다.

앞으로 대승불교인 한국불교에서는 이런 보리쌀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보리밭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곳에서 움을 틔운 보리심의 새싹이 잘 자라서 대승보살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보리쌀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지는 다양한 고견들을 반영하고자 '독자마당'을 개설합니다. 시와 수필 등 다양한 글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motp79@hyunbul.com

社說

남북불교 교류 확대 기대한다

남도의 봄소식만큼 반갑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비로소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은 3월 5일부터 6일까지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만났고, 4월 중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불교계의 통일단체들은 긴 빙하기 속에서 숨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 남북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되자 불교계 통일단체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부처님 오신날 남북 교차방문을 비롯해 신계사 11주년 복원기념 남북합동법회 봉행, 신계사 정밀진단 및 보수공사 등을 계획 중이며,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보수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고 한다.

현재 대북교류사업은 정부보다는 민간,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 사업들을 준비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남북 관계가 경색돼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 · 문화유산 사업들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남 · 북한 불교계가 동시에 연등회를 즐길 수 있기를,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에 다시 목탁소리가 들리길. 남북 종교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준비하길. 이런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길 기원한다.

성폭력 방지 위한 불교계 대책 필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교육계와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폭로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사례들은 위계관계 내지 위력관계를 이용해 힘을 가진 사람이 저항이 어려운 아랫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는 3만건에 육박하는 2만 9289건이다. 이중 3분의 1 가량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최근 미투 운동에 개신교의 목사, 가톨릭의 사제 등이 언급됐다.

문제는 그동안 종교계 내에서 '성' 문제를 터부시하며 성폭력 방지에 대한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단 점이다.

불교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성폭력은 누구든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금기시 해온 불교에서 성담론을 활성화해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여성을 수행에 방해가 되는 대상, 또는 극복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또 피해자를 불교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이, 스님을 유혹한 이 등으로 폄하하는 대중들의 인식도 고쳐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의 피해자들을 보듬어주는 돌봄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종단 내 관련기구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불교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움직임, 더는 늦출 수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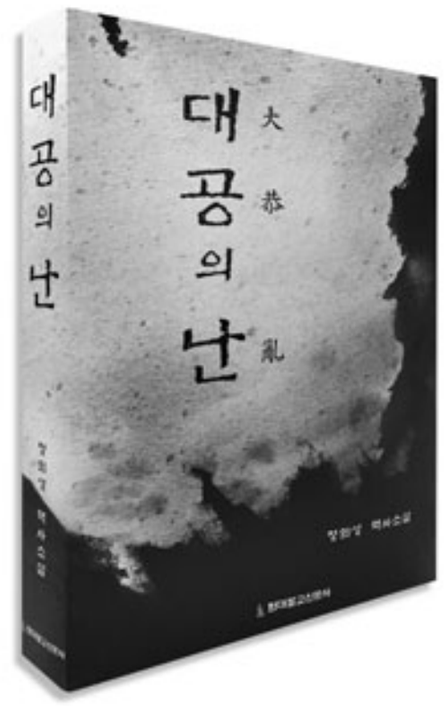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BTN 대표이사 서성우

BORYEON 보련기획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 도 모 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포교 또 포교, 여래의 심부름꾼



테마人 선진규 법사(84)

봉화산 정토원 원장 ·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놓을 수 없는 불연의 연속

갓 나서부터 할머니와 절에 다녀
일제와 전쟁 겪으며 깊은 사유
고2 때 출가 발심 조계사 찾아
출가 대신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대학교 3년 때 해인사에서 출가
동국대 총학생회장 선출로 환속

〈법화경〉 '법사품'에는 여래사(如來使)라는 말이 나온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 독, 송, 서사, 해설하는 일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그는 여래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즉 부처님의 심부름이란 다름 아닌 전법포교의 공덕을 말한다. 누군가에게 법회를 소개하거나 부처님 말씀이 담긴 책자 하나만 전하더라도 그는 여래사인 것이다.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처님을 품기 시작했고, 부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평생 여래사로 살아온 이가 있다. 봉화산 정토원장 선진규다. 포교사 선진규, 법사 선진규, 그를 이제는 여래사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할머니의 정성, 부처님의 가피

명이 짧은 손자. 선 원장의 할머니는 자신의 손주가 짧은 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선 원장은 193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시절은 선 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타고난 명대로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다. 세 명에 한 명은 걷기도 전에 세상을 달리했다. 불심이 돈독했던 선 원장의 할머니는 손주의 불안한 명을 부처님 가피에 기댔다. 갓 나서부터 선 원장은 할머니의 등에 업혀 절엘 다녔다. 아직 들을 줄도, 볼 줄도 모르는 아이는 귀도 눈도 없이 할머니의 염불과 합장으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전에 이름을 올렸다. 할머니의 지극정성이었다. 좀 더 자란 선 원장은 할머니와 함께 절을 찾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이 일이었다.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면 명이 길어진다는 할머니의 생각 때문이었다. 어린 선 원장은 부처님의 존재도 모르는 채 할머니를 따라 부처님께 열심히 절을 올렸다. 선 원장의 불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할머니의 정성 때문이었을까. 선 원장은 다들 넘기기 어렵다는 유년을 넘겼다. 하지만 그 시절의 삶은 쉬운 날이 없는 시절이었다. 때는 일제강점기였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일 수만은 없는 시절이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서

조국은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시절의 힘겨움은 여전했다. 외세의 힘겨움에서 벗어난 이 땅은 그 보다 더 힘겹고 슬픈 전쟁을 시작한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선 원장은 열일곱 살이었다. 이 땅은 또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야말로 '난리'였고, 선 원장을 비롯한 이 땅의 백성들은 또 다시 힘겨워야 했다.

선 원장은 가족들 모르게 군에 지원했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입대하지 못하고 돌아온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진격해왔고, 선 원장이 살고 있는 김해와 부산은 피난민과 후퇴한 군인으로 인산인해, 아비귀환이었다. 그 때, 선 원장의 집 뒷산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나중엔 집 마당까지 미군의 주둔지가 되어버렸다. 선 원장의 할머니는 또 다시 손주가 걱정이었다. 선 원장의 할머니는 이번에는 손주의 목숨을 부처님이 아닌 미군에게 맡기기로 했다. 손주가 미군을 따라간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예전에 부처님께 의지했을 때처럼 미군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결국 선 원장은 미군 24사단 일선보급부대의 군속으로 미군을 따라가게 된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면서 보급부대였던 24사단은 북쪽으로 진격해 평양까지 올라가게 됐고, 1.4 후퇴 때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미군과 함께 한 선 원장은 참혹하고 고단한 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겪는다. 삶과 죽음이 각자의 것일 수 없으며, 또한 살아있음이 '존재'와는 또 다른 것이었던, 암울한 시간을 생생하게 겪어야 했다. 그렇게 선 원장은 전쟁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겪으면서 육체적 정신적 성장기를 지나간다.

이어지는 불연, 출가발심

전쟁은 휴전을 맞았다. 생생하게 전쟁을 겪은 선 원장은 부산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전쟁은 잠시 멈추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어두웠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도 모른 채 뒤엉킨 삶과 죽음 속에서 모두는 힘겨웠다. 선 원장 역시 힘겨운 세상 속에서 힘겨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고등학생의 선진규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삶에 대한 의문들이 이어졌다. '같은 민족끼리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무고한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가',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해야 하는가',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등 생사의 근원과 자신의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번뇌에 휩싸인 청년은 눈앞의 삶에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다. 학교도 무의미했다. 청년 선진규는 이른 나이에 세상의 깊고 깊은 곳에 가 있었다. 선 원장이 고뇌 속에서 찾은 곳은 절이었다. 학교에 가야 할 선진규는 시내에 있는 암자를 찾아 부처님을 뵈었다.

"부처님, 저와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힘겨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유 없는 인연은 없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한 청년이 찾아간 곳은 할머니 등에 업혀 다녔던, 절이었다. 그리고 가랑비는 옷을 적셨다. 부처님을 뵙는 날이 쌓여가면서 선 원장은 출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결심한다. 선진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는 서울로 향했다. 조계사(당시 태고사)를 찾아 권상로 스님을 뵈었다.

"출가하고 싶습니다."

"뜻은 기쁘나 대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학생을 받을 수가 없으니, 고등학교를 마치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길이 꼭 머리를 깎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네."

집으로 돌아온 선 원장의 목표는 오로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입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한다. 그에게 불교대학 진학은 '삭발염의'의 '출가'와 같은 것이었다.

놓을 수 없는 '출가'

동국대에 입학한 선 원장의 뜻은 하나였다. 성불이었다. 부처님 공부만이 그의 길이었다.

B2면에 계속

선진규 법사는… 193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1956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한 후 3학년 때인 1958년 해인사로 출가했지만 총학생회장에 선출되면서 곧바로 학교로 복귀했다. 1959년 학교를 졸업하면서 봉화산에 호미든 관음상을 봉안했으며, 그 후 포교에 진력했다. 1972년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선발되었으며, 대한불교청년회 제10대, 11대 회장을 역임했다. 1983년 김해 봉화산수련원을 설립하고 청소년 포교에 진력했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8대 회장과 동국대 객원교수, 동국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봉화산 정토원 원장과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 청소년모범지도자 포상, 국민훈장 목련장 등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선종 형성의 역사적 배경

B5 문화
심미나 개인전 '외로움 총량의 법칙'

B6 학술 · 문화재
사지 · 대형불좌 등 중요 연구보고서 발간

청소년부터 만해까지… 포교불사 60년 매진

'선진규 법사' B1면에서 계속

하지만 불교학과의 위상과 존재성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불교학과는 일명 '목탁과'로 불리고 있었고, 학교생활은 자신이 꿈꾸고 원했던 불가적 시간과 달랐다.

선 원장이 3학년 때였다. 시절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결국 선 원장은 짐을 챙겨 해인사로 향했다. 마침내 그가 꿈꾸던, 진정한 모습의 출가를 단행한 것이다.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었다. 강원의 책으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글자로 하루하루를 살고 싶었던 선진규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였다. 하지만 그의 불연은 쉬운 길을 주지 않았다.

선 원장이 행자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학교 학생처 직원이 내려왔다. 선 원장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다. 선 원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총학생회장에 선출되어 있었다. 선 원장은 할 수 없이 학교로 복귀한다.

"학교를 해인사라고 생각하게, 내가 그렇게 해 주겠네."

그리고 그는 당시 총장이었던 백성욱 선생으로부터 매일 〈금강경〉 강의를 듣는다. 출가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이었다. 학생이 총장으로부터 일대 일 강의를 들은 것은 아마도 선 원장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아무튼 선 원장의 출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선 원장은 출가를 이루지 못한 대신 재가불자로서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은 원력을 품게 된다. 그것은 불교를 위해 사는 것, 곧 포교였다. 선 원장에게 불교는 힘겨운 시간을 버티게 해준, 삶의 등불이었다. 선 원장은 그토록 이로운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일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호미든 관음상…원력의 시작, 포교의 시작

1959년 선 원장은 대학을 졸업한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이 많았다. 전쟁의 상흔으로 모든 것들이 스러진 국토, 보릿고개 위에서 사는 배고픈 국민들. 그런 국민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정치. 그리고 힘겨운 중생에게 가장 가깝게 있어야 할 불교는 대처와 비구로 나뉜 채 오히려 대중의 걱정이었다.

"세상이 이토록 고단한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 가르침 받은 제자로서 고단한 사바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선 원장은 도반들을 모았다. 고단한 대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관음상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호미든 관음상'이다. 관음보살은 힘겹고 어려운 세상의 대중이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다. 그 해 4월 5일, 봉화산 정상엔 호미를 든 관음보살상이 봉안된다. 선 원장의 주도로 조성된 관음상은 선 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 31명의 불교학도가 심신개발 · 사회개발 · 경제개발 · 사상개발의 의지를 담아 조성한 것으로, 힘겹고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고 있는 모두에게 성찰과 그에 따른 실천을 서원하는 것이었다. 삶의 원천을 상징하는 호미는 마음의 밭을 가꾸자는 서원이자 실천의 의지로, 선 원장이 평소 품어왔던 '생활불교'의 천명이기도 하다.



1959년 선진규 원장이 봉화산에 모신 '호미든 관음상'



2월 28일 심우장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불교준비위원회 구성 발기인 대회'. 왼쪽 두번째 선진규 원장.



2002년 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선진규 회장 〈맨 오른쪽〉의 취임식.



1993년 봉화산 청소년 축제

불교대중화 앞장선 포교수행자

선 원장의 꿈은 출가 수행자였다. 불연을 출가로 회향하지 못한 선 원장은 호미든 관음상을 모시고 난 후 다시 한 번 굳게 서원한다. 그리고 그 서원을 향해 달린다. 60여 년을 쉼 없이 달린다.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디든 달려갔다.

1972년, 선 원장은 조계종 중앙 상임포교사로 선발된다. 그에게는 더 없이 필요하고,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자신의 원력을 펴기에 더 없는 시절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1978년, 선 원장은 대한불교청년회(이하 청년회) 10대 회장으로 선출된다. 그 이름 역시 포교의 원력을 품은 그에게는 '날개'였다. '선진규' 그 이름이 현대 한국불교에서 진하고 굵은 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 때부터일 것이다. 그는 불교 저변을 넓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선진규의 '불사'를 시작한다.

그는 청년회의 출발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해 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만해백일장을 처음 기획하고 개최했다. 그리고 강연회와 세미나를 연이어 마련했다. 또 설법회 개최와 찬불가 제작 등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한 사업을 펼쳐나갔다. 찬불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제등행진곡' 등 우리 귀에 익은 찬불가는 남다른 불사관(佛事觀)을 가지고 있었던 선 원장의 노력으로 탄생한 곡이다. 법당 세우는 일만이 불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선 원장이었다.

'포교수행자' 원력, 평생동안 실천

대학졸업 후 '호미든 관음상' 봉안

'생활불교' 서원 세우고 일념 노력

만해 백일장 처음 기획 · 개최해

찬불가 보급 등 불교 대중화 추진

가야불교 바로 알리기에 나서

3 · 1운동 100주년 사업도 준비 중

그의 불사는 이어졌다. 1979년 9월 1일, 선진규의 청년회는 제1회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주제는 '우리는 참회합니다'였다. 불교계 분쟁의 모든 원인을 청년회가 책임지고 참회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로 인한 온갖 불행한 시대적 아픔을 모두의 참회로 인식하는, 차원 높은 보살행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대회였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회향했고, 그 성과는 컸다.

또한 그는 민족의 미래이며, 불교의 미래인 청소년불사에도 진력했다. 그는 1983년 김해에 봉화산수련원을 설립하고 청소년 교육불사에 힘을 쏟았다. 당시 그가 개발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프로그램은 전국 수련포교프로그램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그 공로로 그는 2006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그 밖에도 전국의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 죽비 보내기 운동', '봉화산 청소년 축제' 등은 청소년을 위한 불사로, 선 원장이 걸어온 포교의 길에서 커다란 불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년회 11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된 선 원장의 불사는 이어졌고, 그가 임기를 마쳤을 때 청년회는 16개 지부에서 152개의 지부로 늘어나 있었다.

선진규, 그의 이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2002년, 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다. 그는 새로운 신도운동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도자수련대회와 조직을 정비하는 등 신도회가 '조직'으로만 끝나지 않고, 불법홍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멈추지 않는 전법포교

2018년 2월 28일, 만해 스님의 유택인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불교준비위원회 구성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발기인 대회는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인 평화통일 선언' 등 전국적으로 불교기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 중심엔 역시 선 원장이 있었다.

1959년 선 원장이 봉화산에 호미든 관음상을 봉안한 이후로 그의 이름은 불교가 있어야 할 자리와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자리마다 빠지지 않았다. 그가 향하는 곳, 그가 머무는 곳,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바라보는 곳은 모두 포교의 일환이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의 인연 역시 많은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그의 원력과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명함 뒷면엔 20개 가 넘는 직함이 적혀있고, 현직인 직함만 해도 6개가 적혀있다.

그는 얼마 전부터 가야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동참하고 있다. 가야불교문화원 홍보위원장인 그는 우리 불교의 뿌리에도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불교의 작은 글씨 하나도 아까워하는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불심'이며, 천상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제 그의 이름 앞에 '여래사'를 붙여본다. 여래사 선진규.



禪은 성불의 중요한 수단·방편·과정

〈선〉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⑤ 선종 형성의 역사적 배경 (선종이 지나온 발자취)



그림 · 강병호

불교에서 선(禪)은 번뇌를 극복하고 지혜를 계발하고 세속의 모든 잡된 인연을 끊어 피안에 도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불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시고 최고의 지혜를 획득하신 것도 역시 선정(禪定)을 통해서다. 따라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 선(禪)법도 함께 전해져서 중국에서 특수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당나라 때 규봉종밀 선사는 선정[三昧]은 불교도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수행법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도서〉에서 말하기를 "선정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신묘가 되고, 성품상에서 무루지혜 (無漏智慧) 및 만행만덕을 발하고 일으키게 하며, 내지 신통광명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定[삼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고 했다. 즉 선은 성불의 중요한 수단 및 방편이자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나라가 멸망하고 중국대륙은 크게 세 나라로 분열되게 된다. 즉 삼국시대(220~265) 45년 동안의 기간으로, 위 · 오 · 촉(魏 · 吳 · 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때의 불교는 기본적으로 한대(漢代)의 불교를 계승 발전해 오고 있었다. 한나라 말엽에 중국에 유입된 불교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동진 때에 이르러 널리 유포되기 시작 하였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전통문화와의 충돌을 겪으면서 중국불교문화 및 중국문화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면면히 계승 발전되었다. 비록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 선법도 함께 유입 되었지만, 중국인들이 처음부터 선법을 흔쾌하게 받아드리지는 않은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교의 양생술 내지 도술의 한 지류로 받아드렸다. 기록에 의하면 양진(兩晉)시대가 되서야 비로소 선법을 수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초기 선법이 그리 체계적인 것도 아니었고, 또 어느 스승에게 선법을 계승했다는 기록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비로소 선사상에 통달했던 구마라즙과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 覺賢)가 중국에 이르러서야 중국선학은 새로운 발전 단계를 맞았다.

구마라즙이 중국에 오면서부터 각종 선법에 관한 전적들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에서 초기 선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 · 〈선법요해(禪法要解)〉를 번역했다. 구마라즙을 교학적으로 볼 때 반야계통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선법계통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선법을 계승했는지 그 원류가 불분명하며, 선법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몇몇의 고승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때에 선학의 대가인 불타발타라가 중국에 오면서 장안에서 전문적인 선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고승전 · 불타발타라전〉에 보면 "사방에서 청정을 좋아하는 자들이, 풍문을 듣고 모여들었다"고 적고 있다. 그 후 구마라즙 문하의 배척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남방의 여산으로 가게 되었다. 불타발타라는 전문적인 선법을 전한 것 이외도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등 선수(禪數 · 수식관(호흡관 계통경전)에 관한 경전 등을 다수 역출했다. 〈달마다라선경〉의 선경은 전통적으로는 대승선적(大乘禪籍)에 속하는 선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승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대사인 달마다라(達摩多羅 · 法救)와 불대선(佛大先) 선법의 위주로서, 대소승선법을 융화해서 수립한 것이다. 이 선법의 특징은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거치는 수행법이었기 때문에 당시 승속을 막론한 불교도들의 깊은 환영을 받았다.

양진시대 이르러 선법수용
구마라즙 · 각현 이후 선학 발전
달마선 서서히 부각
승조대사 이후 '격의불교' 퇴각
당나라 중엽 선종 비약적 발전
200여 년 중국불교의 주류
정토종과 선종 실참수행

그러나 불타발타라가 전한 선법은 소승의 오종관법(五種觀法) 위주였으며, 그중에서도, 불타발타라는 일찍이 선법을 수행(학)하는 고정적 장소와, 선을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풍토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구마라즙과 불타발타라 이후에 비로소 중국 선학이 흥기하기 시작 했으며, 동시에 모모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단체가 생기기도 했다. 그중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낸 단체가 바로 달마선이었다.

이미 세속적인 중국의 종법제도(부계의 혈통으로 적자가 계보를 잇는 제도)를 채용해서 법맥체계를 정비한 시대이기도 하며, 후세에 달마가 동토초조가 되는 기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선종은 사자(師資) 계승법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선종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전통문화와 융화된 하나의 실례라고 하겠다.

오래지 않아서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금릉(지금의 남경)에서 번역한 〈승만경〉 · 〈능가경〉을 역출하면서 사람들은 선법에 대한 분류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능가경〉에서는 네 가지로 선법을 분류하고 있다. 즉 범부소행선(凡夫小行禪 · 소승 및 외도선), 관찰의선(觀察義禪 · 아공 법공을 관하는 것), 반연여선(진여 및 실상을 관하는 것), 여래선(여래선 혹은 자각성지)으로 여래선의 최상승 경계이다. 이후에 규봉종밀은 〈도서〉에서 선을 다섯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즉 외도선 · 범부선 · 소승선 · 대승선 · 여래최상승선으로 분류했다. 종밀의 이러한 선법에 대한 분석은 아마도 〈능가경〉의 선법 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동진 말엽부터 유송초(劉宋初)까지 불교의 대소승 각파의 학설이 균등하게 수입되었다. 불전이 점점 많이 번역되었고, 따라서 불전에 대한 해석이 흥기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경사강론(經師講論)이 흥성하기도 했다. 또 위진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전통사상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노장사상을 뼈대로 하는 '현학(玄學)'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학이 토론하였던 중심 문제는 본체론에 관한 '유'와 '무'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즉 한나라에서 '우주론'을 논했다면, 이때 현학에서는 '본체론'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 때 불교의 반야학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반야학에서 토론했던 '공'과 '유'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현학의 '유무론' 사상과 유사점이 존재했다. 동진 시기의 약간의 반야학파는 왕왕 '격의'의 방법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기도 했는데, 즉 중국의 현학사상 내지 노장사상을 가지고 반야학을 이해하고 해석했다. 그 흔적은 당시의 반야학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오가칠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즉 오가칠종 가운데 담제(曇濟)의 '본무종(本無宗)'은 사실 왕필(王弼)과 하연(何晏)이 주장했던 '귀무(貴無 · 崇無論)'로 반야학을 표현했고, '심무종(心無宗)'은 계강(稽康)과 완적(阮籍)이 주장했던 '무심(無心)'사상과 근접해 있으며, '즉색종(卽色宗)'은 배위(裵頠)의 '숭유론(崇有論)'사상과 관계가 없지는 않다. 동진 말엽에 이르러서 승조라는 걸출한 승려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이러한 격의식 방법의 불교해석을 배격하면서 불교는 진정한 반야학의 의미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았다. 특히 승조는 본무종(本無宗) · 심무종(心無宗) · 즉색종(卽色宗)등 삼가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그는 현학의 각파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승조 대사가 전면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서면서부터 현학을 통해 반야학을 해석했던 '격의불교'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되었다.

남북조 시기에 이르러서 불교문화와 중국 전통문화와의 충돌 현상이 각계각층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정치, 경제, 종교 등 각 방면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서 충돌이 심했다. 〈홍명집〉의 기록에 의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당시 중국의 봉건체제와 불교가 충돌을 하는데, 중국불교역사에서 유명한 동진 시기 혜원 법사가 주장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등도 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출세(出世)와 입세(入世), 충군(忠君), 효부모(孝父母) 등에 관한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사상적 철학적 방면에서 역시 '신멸(神滅)과 신불멸(神不滅)'의 문제, 인과응보에 대한 문제 등은 결국 '인과(因果)'와 '자연(自然)'의 문제, 사람과 중생의 문제, 〈주역〉에서 주장하는 '人(인) 천(天) 지(地)' 등 삼재(三才)의 문제, 화이 간의 차별적인 문제 등은 그 당시의 논쟁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또 이 시기에 발생했던 북위 태무제(太武帝)와 북주무제(北周武帝)의 훼불사건 등이 있다.1)

즉 정치적인 의도로서 불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위정자들은 희망을 이루지도 못한 채 역사의 오점만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 속에서 선법은 중국불교사의 한 모퉁이에서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곧 중국불교 발전사에서 많은 문화적 충돌과 모순 속에서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지에 불교의 종자를 뿌리내리는 토양이 되었고, 한편 지나온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얻어진 교훈 및 경험을 축적하고 계승해 수당이라는 역사적 여정을 거치면서 불교는 또 다른 변신을 꾀하기 시작했다. 인도불교는 수당 이후 점점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먼저 태동된 것이 바로 중국화 된 종파의 수립이었다. 수나라의 대륙의 통일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문화는 당나라에 이르러서 각 분야에서 전성을 이루면서, 불교는 전례가 없는 성황을 맞이한다. 급기야 8대 종파를 형성시키면서 그야말로 불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우기에 이른다. 당시 8대 종파 가운데서 삼론 · 천태 · 화엄 · 법상 등이 비교적 이론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면, 정토종과 선종은 비교적 실참수행에 근간을 두면서 서서히 민중에 펴져가고 있었다. 선종이 위진 시기로부터 당나라 초까지의 비주류를 청산하고, 당나라 중엽에 이르러서 선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200여 년 동안 중국 불교의 주류가 되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승승장구 하면서 찬란한 선종의 문화를 탄생시켰던 중국의 선종도 당나라 말엽 오대십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퇴락하기 시작하였고, 송대 이후의 선종은 또 다른 모습으로 면모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선법 및 선종의 기틀을 마련한다.

1)탕일개 작, 〈불교와 중국문화〉. 종교문화출판사, p.4-5.

〈동국대 강사〉



더 큰 사랑 위해 가장 아끼는 것 버린 법정 스님

〈출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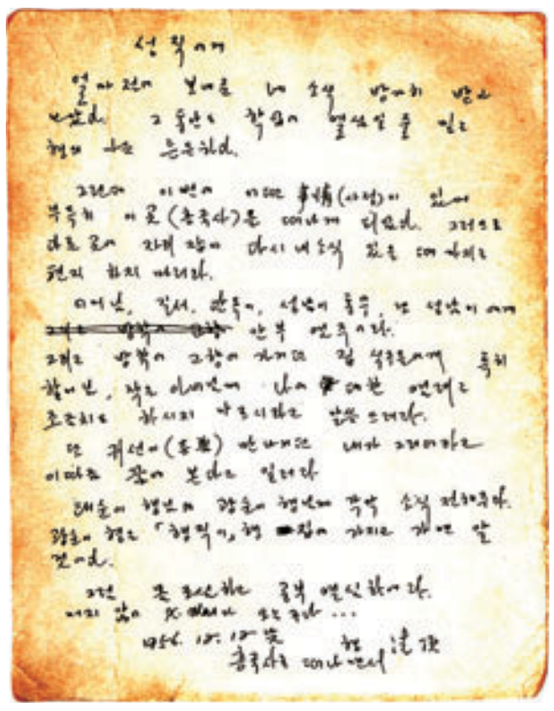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법정 지음/박성직 엮음/책읽는 섬 펴냄/1만 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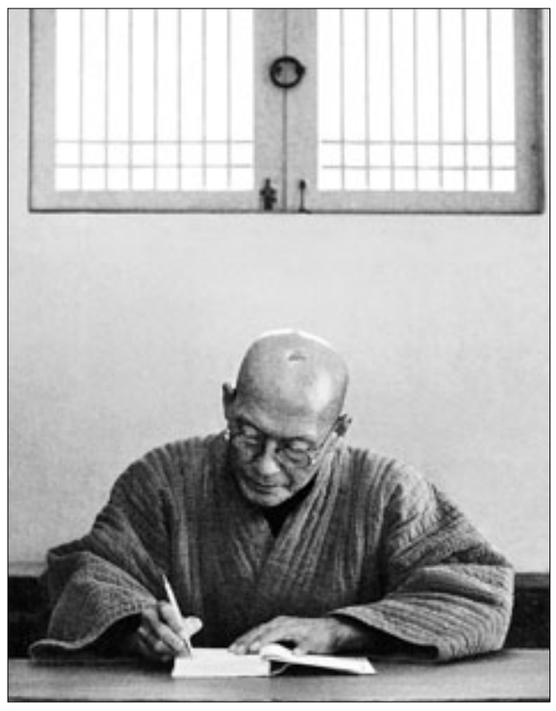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963년 7월 5일 해인사 일주문앞에선 법정 스님과 박성직 씨.



1956년 12월 12일 흥국사서 박성직 씨에게 보낸 법정 스님 편지.



법정 스님의 생전 모습.

"불쌍한 우리 어머님 아들 노릇 네가 대신 해 다오."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겪은
고통과 고뇌, 희열과 깨달음의 흔적 담긴 편지 50여편
법정 스님 입적 8주기에 맞춰 새롭게 편집해 재출간

한국 전쟁이 끝났다.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고, 누군가는 서서히 미쳐 갔고, 누군가는 밀항을 꿈꾸었고,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참상을 목격한 대학교 3학년생 박재철. 그는 몇 날 며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회답 없는 질문을 던지다가 홀연히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이듬해에 박재철의 사촌동생 박성직에게 짤막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든다. 핵심 요지는 "불쌍한 우리 어머님의 아들 노릇을 네가 대신 해 다오"라는 부탁이었다. 그리고 박재철은 승려 법정(1932~2010)이 되었다.

이 책은 1955년부터 1970년까지 법정 스님이 사촌동생 박성직(77)에게 보내온 50여 편의 편지를 엮은 것이다. 홀어머니를 비롯한 친지들과 혈육의 인연을 끊어 버린 매정함을 스스로 질책한 청년 박재철. 그가 위대한 자연과 진리에 의탁하며 승려 법정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내면의 독백으로 이어진다. 그 편지들 속에는 구도행을 하는 한 수행자가 마주한 인간적 고뇌와 깨달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특히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어 흥미롭다. 이외에도 편지속에는 1976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인 〈무소유〉가 글감이 된 사연들과 깨우침도 알알이 박혀 있다.

이 책은 원래 2011년에 출간된 〈마음하는 아우야〉를 재편집한 것이다. 하지만 첫 판본과는 달리 출가 당시를 회상하는 법정 스님의 소회를 담은 에세이와, 편지에 짧게 이름만 등장하는 이를 추억하며 쓴 글들을 덧붙여 내용을 보다 튼실하고 풍성하게 엮었다. 그래서 독자들은 법정 스님의 편지와 이 책에 인용한 에세이를 함께 접하면서 편지에 담긴 사연과 의미를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쩌면 승려 생활 초기에 법정 스님이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고행은 '인연의 끊어 버림' 이었을 것이다. 가족을, 청춘을, 나아가서는 속세에 머물던 박재철의 존재조차 끊어 버려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 오히려 자신을 걱정할 동생에게 보낸 글이기에 의연함을 담았지만, 그의 편지에는 자신의 길을 택함으로써 오랜 고향을 등진 이의 설움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옛집의 주소조차 잊어버렸다' 는 그의 서글픈 음성에서는 인간적 애잔함과 함께 오히려 수행자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더 큰 사랑을 위해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린 것이다.

법정 스님이 사촌동생 박성직에게 보낸 편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삶에 대한 조언과 당부의 말이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책과 친구는 가려서 접하라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순간을 건지라고,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거라고, 번민하고 사색하라고, 자연으로부터 배우라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등등. 동생에 대한 사랑이 곳곳에 묻어난다.

법정 스님이 박성직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6년 뒤에 불후의 명작인 〈무소유〉가 세상에 나온다. 앞서 밝혔듯, 〈무소유〉에는 법정 스님이 박성직에게 보낸 편지를 원전(原典)으로 삼은 에세이가 더러 실려 있다. 50여년 전 법정 스님이 동생에게 보낸 이 편지들은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 추억이라는 타임캡슐에 담아 오늘의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상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법정 스님과 박성직과의 편지는 점점 뜸해지다가 1964년 이후에는 끊긴다. 공식적인 마지막 편지는 책 속에 나온걸로 보면 1970년 11월경이다. 박성직의 부친이자 법정 스님의 작은 아버지 별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요즘의 내 건강과 주위의 내 형편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은혜로운 분은 작은 아버지이시다. 나를 교육시켜 눈을 띄워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할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법당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내가 진 빚이 한량이 없구나. 불효하기 그지 없고 … …"

한편 지난 3월 11일은 법정 스님 입적 8주기였다. 스님이 생전에 창건한 성북동 길상사에서는 스님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와 법회가 열렸다. 스님의 유언에 따라 스님 관련 출판물이 절판돼 아쉬움이 큰 춘삼월, 스님의 향훈과 체취를 다시 글로서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은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을 그리워 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봄선물이 될 것 같다.

▲저자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대학 재학 중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1955년 통영 미래사로 입산해 1956년 송광사서 효봉 스님의 문하에 출가했다. 다음날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행자 생활을 했으며, 사미계를 받은 후 지리산 쌍계사 탑전으로 가서 스승을 모시고 정진했다. 그후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수행자의 기초를 다지다가 28세 되던 해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1975년 본래의 수행승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에 명성이 알려지자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아무도 거처를 모르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 문명의 도구조차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왔다. 폐암 투병 중 2010년 3월 11일 병원서 퇴원해 법정스님이 1997년 12월 창건해 2003년까지 회주를 맡은 길상사서 입적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산에는 꽃이 피네〉 〈인연 이야기〉 〈오두막 편지〉 〈물소리 바람소리〉 〈무소유〉등이 있고, 역서로 〈깨달음의 거울(禪家龜鑑)〉 〈진리의 말씀(法句經)〉 〈불타 석가모니〉 〈숫타니파타〉 〈因緣이야기〉 〈신역 화엄경〉 등 다수가 있다.

▲엮은이 **박성직**은? 법정 스님 사촌동생으로, 어린 시절 한 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랐다. '나 대신 네가 아들 노릇 해 달라' 는 스님의 부탁을 받들어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법정 스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줄곧 제사를 지내왔다. 1986년 불일암에서 부부가 함께 법정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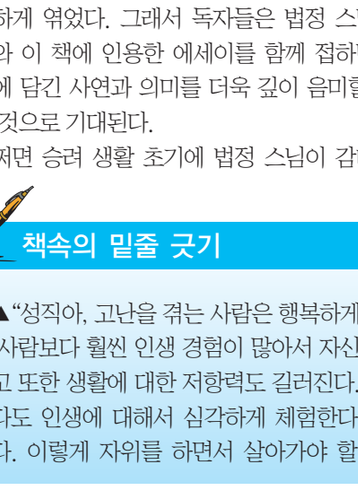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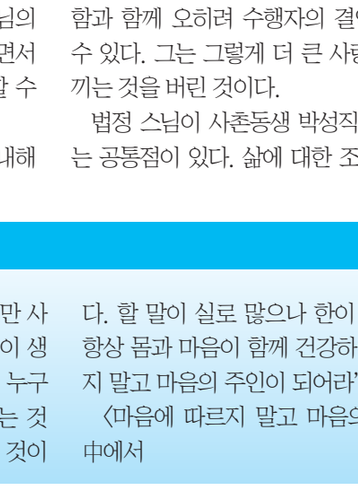
▲"성직아, 고난을 겪는 사람은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보다 훨씬 인생 경험이 많아서 자신이 생기고 또한 생활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진다.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체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할 말이 실로 많으나 한이 없겠기로 줄인다. 항상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여라.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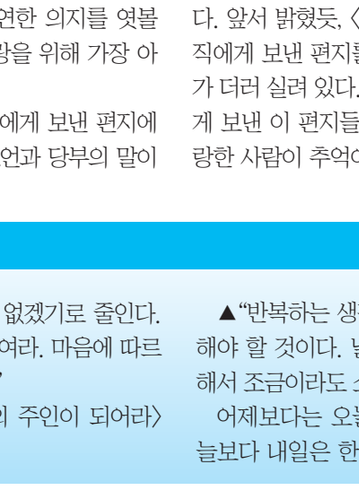
▲"반복하는 생활에서 어떤 위대한 것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생활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야 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은 한 걸음 앞서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훌륭한 삶의 보람이 있고 인간 성장이 있는 것이다. 저 하늘의 태양을 보아라. 흐린 날에도 제 갈 길은 꾸준히 가고 있는 그 위대한 모습을!"
〈반복되는 일상 속의 위대함을 보아라〉中에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그저 먼 날에 죽어 버렸거니 생각하여라. 실은 죽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편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곳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세상일이라는 게 한바탕 꿈〉 中에서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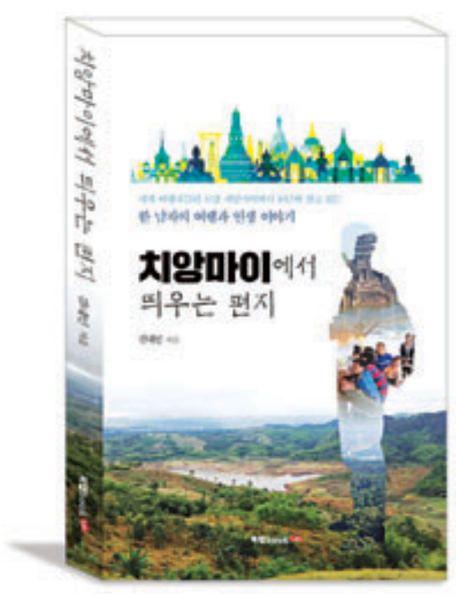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 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외로움,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심미나 '외로움 총량의 법칙' 展… 탑골미술관 3월 30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모두 외로운 존재, 사실 알리고 모두에게 위로 위안 주고 싶어"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색채 복합적 미묘한 색과 은유적 표현

외로움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또한 각자가 겪어야 하는 외로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그런 가정을 설정한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서울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3월 2일(금)부터 30일(금)까지 심미나의 개인전 '외로움 총량의 법칙' 전을 연다.

이 전시는 201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개인전을 열게 된 심미나 작가는 지난 2017년 신인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신인 작가 중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투표와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저는 인간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위안을 전하고 싶어서 외로움을 주제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넓은 모래사장에 버려진 빨대 하나, 그 위에 고개 숙인 작고 투명한 코끼리. 심미나 작가는 외로움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만약 우리네 삶에서 겪을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총량이 정해져있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작품을 시작했다. 작가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을 보다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고, 스스로의 인생을 좀 더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작가의 설정은 그렇게 성립되었고, 그림은 그 설정(작가의 가정)에서 출발한 그림이다.

모두가 외로운 존재이고 모두 같은 양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은 외로운 대상에게 작은 위로와 위안이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겉으로 들어나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울한 감정을 감추고 있는 상태이다. 작가는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색채를 통하여 도달하고자 한 숭고의 이미지를 넓은 색과 면 위에 나타내고 있다. 복합적이고 미묘한 색과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외로움을 그려냈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선 자리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체온과 같은 앵프라맹스(inframince)다"고 말한다.

심미나 작가는 외로운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앵프라맹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과 죽음 사이, 윤리와 본능의 사이, 권리와 의무 사이 등 인간은 모든 경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외적인 나와 내적인 나 사이에서 외로움과 우울이 발생하는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 경계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앵프라맹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하지만 미묘한, 그 미묘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외로움 이후의 스펙트럼이 작가의 시선과 만나고 있다. 외로움이 분명 존재하듯이 '앵프라맹스' 역시 분명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로움 속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증명해내기 어려운 앵프라맹스를 가질 수 있다. 심미나 작가의 그림은 그 미세하고 미묘한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속 나 되어보기'가 진행된다. 심미나 작가의 그림 위에 관람객들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으며 완성할 수 있다. 관람객들마다 각지 다르지만 끝이 정해진 우울의 총량이 덧대어 완성되어가는 매일매일의 모습도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다.

심미나 화가는 2012년 〈다그리고전-라메르갤러리〉, 2014년 〈화이트세일-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2017 〈깊고 짙은 마음-고양벨라시티〉전을 열었으며, 2017년 아트경기 선정 작가다.


〈무제〉, 130×162 유화, 2018


〈무제〉, 130×162 유화, 2018

단순 풍경 아닌 '생태'로서의 지리산

이호신 화백 '지리산 생활산수' 展
3월 15일~5월 16일 경남도립미술관


하동 먹점마을의 봄, 2016 46×60cm 한지에 수묵.

단순 풍경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본 지리산 그림을 전시한다.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리산 생활산수-이호신'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호신 화백이 지난 10여 년 간 그린 지리산 진경과 지리산 둘레길 산수화로 구성된다. 더불어 지리산 답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화첩도 만나볼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 산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전통 산수화와 조금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화백의 지리산은 역사와 시대정신, 자연의 경외와 다양한 생태, 삶의 둥지와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림이다. 전시 제목이 '지리산 생활산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침 올 해는 지리산 둘레길이 열린지 10주년이다. 지리산 둘레길은 2008년 '생명평화'와 '동서화합'이라는 나눔과 화해의 정신을 기반으로 지리산 주변 3개 도, 5개 시군, 120여 마을을 연결해 조성된 순례길이다. 이 화백은 지리산 둘레길을 운영하는 (사)숲길 이상윤 이사와 함께 2년 동안 지리산 둘레길 21구간을 직접 걸었다. 그 기간 동안 이 화백은 그림을 그렸고, 이 이사는 글을 썼다. 그 결과물이 얼마 전 출간된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이다. 이번 전시에서 책 속의 그림을 원작으로 만날 수 있다.

둘레길에는 산과 함께 마을이 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둘레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림 속 풍경은 보는 순간 보는 이를 풍경 속으로 불러들인다. 그림 속의 자연이 품은 집과 사람 때문이다. 그림 속 마을과 사람은 자연 풍경에 비해 약간 도드라지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보는 이는 그림을 통해 많은 풍경과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소박한 듯 담백한 둘레길 외에도 백두대간의 대표 산으로서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지리산도 볼 수 있다. 대형 작품 중심으로 구성된 지리산 진경 역시 자연으로서의 지리산 역사와 문화유산이 가득한 장소로서의 지리산을 담고 있다. 특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으려고 한 이 작가의 노력을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국박, 청소년 대상 전시 감상 교육 운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을 위한 전시 감상 교육 프로그램인 '교과서는 살아있다'와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를 운영한다.

'교과서는 살아있다'는 청소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주제별로 묶어 스스로 관찰, 탐구, 상상하는 감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연', '지배자', '그릇', '재료' 등의 주제 아래 모둠별로 협동하면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실 방문 전 · 후에 관련 복제품을 직접 만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전시품을 상상,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는 청소년들이 모둠별로 아시아 관련 전시품을 스스로 탐색하면서 타문화를 이해해 보는 문화다양성 전시 감상 교육이다. 인도실, 중앙아시아실, 중국실, 일본실에서 '교류'의 흔적을 찾는 주제 아래 그리기, 글쓰기, 움직이기 등의 자유로운 신체 활동과 관련 사진, 영상 등의 보조자료를 통해 전시품을 다각도로 추리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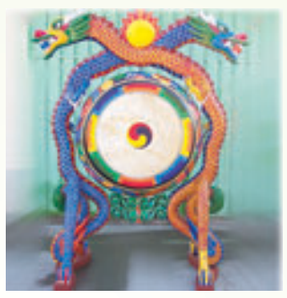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위 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급 단체(담당교사)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교육 · 행사→교육신청→청소년→ '교과서는 살아있다' 또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에서 3월 7일(수)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학교별 담당교사가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완료해야 최종 참가학교로 확정된다. (접수는 선착순, 참가여부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박재완 기자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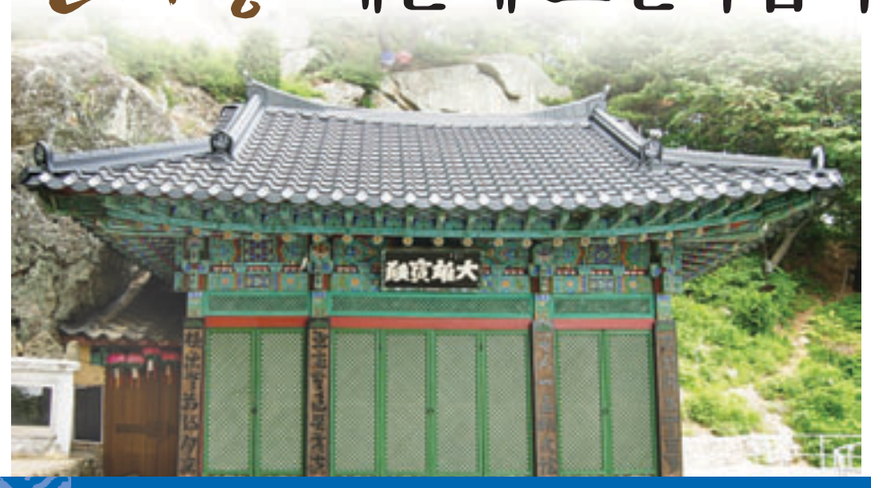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지·대형불화… 최신 조사·연구 결과 '한눈에'

불교문화재硏·성보硏, 문화재청 공동 조사서 발간 잇달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문화재 연구기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 기초 연구 조사 사업에 대한 결과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해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담은 〈한국의 사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발간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나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논산 개태사지 등 26개소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사지 348개소 등 총 374개소를 조사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역(寺域), 유구·유물 현황, 식생(植生),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정리·수록했으며 항공사진, 세부사진과 출토 문화재의 사진을 첨부했다.

또한 문헌, 학술논문, 일제강점기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망라해 개별 사지의 연혁,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아산 신봉리사지2·3, 서산 보현사지 등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지 20개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서산 보현사지는 18세기의 문인 이철환이 서산 가야산 일원을 유람하고 쓴 기행록 〈상산삼매(象山三昧)〉에 언급되어 있는 곳으로 기록을 토대로 위치를 탐색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사지 내에서 석탑재가 새롭게 발견되어, 가야산 내 중요 불교유적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임을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 신봉리사지3은 고용산 정상에 있는 사지로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 전기 마애여래좌상을 새롭게 조사했으며, 다량의 유물을 포함한 사지의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형불화인 괘불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 하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7년도 '대형불화 정밀조사'의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3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사지-충남권〉(사진 왼쪽)과 성보문화재연구소의 〈대형불화조사〉(사진 오른쪽) 보고서. 모두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사업의 결과물이다.

'한국의 사지-충남권'

충남 374개소 사지 현황 수록
문헌, 일제시기 자료 등 망라
미확인됐던 사지 20곳 조사도

'2017 대형불화 조사'

전국 사찰 소재 괘불탱 7건 조사
정밀실측·채색정보 등 연구 수록
흥국사괘불탱 재질 비단으로 확인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총 7권으로 △국보 제301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62호 용봉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79호 죽림사세존괘불탱 △보물 제1331호 흥국사노사나불괘불탱 △보물 제1342호 미황사괘불탱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 △상주 남장사영산회괘불탱(비지정)를 조사·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7건 괘불탱의 현황과 정밀실측, 분석, 채색정보, 문양 등에 대한 원형 자료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채색기법 연구를 통해 제작방법을 검증하고, 전통 안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장 조채를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과들도 상당한 수준이다. 보물 제1331호 흥국사노사나 불괘불탱의 경우 기존에는 삼베(痲布) 바탕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를 통해 바탕 재질분석 결과 비단에 그려졌음이 확인됐다.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은 화면에서 총 151개의 범자가 확인됐으며, 존상의 신체에 기록된 것은 〈조상경(造像經)〉의 불복장 의식과 동일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지정 문화재인 남장사영산회괘불탱의 경우 괘불탱 관련 유물(불사성공록, 복장낭, 보관함, 복장유물 등)을 전수 조사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염불신행' 주제 학술 공모 열린다

韓불교학회 4월 27일까지 5월 25일 춘계대회서 시상

염불신행의 학술적 고찰을 위한 학술상 공모가 진행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염불신행에 대한 불교학적 고찰'을 주제로 한 불교학술진흥상을 공모한다.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상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세부 연구 주제는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염불신행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조망 △염불신앙을 통한 가피(加被)의 사례 연구 등 2가지다.

작성 원고 언어는 한글과 영어이며, 분량은 한글은 200자 원고지 100~120매·영어는 1만 단어 이내이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논문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대상에게는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2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100만원이 수여되며, 〈한국불교학〉68집에 수록된다.

이와 함께 춘계학술대회는 '불교와 불교학, 현재의 반성과 미래의 지향 - 인간을 고민하는 불교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다.

불교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연구의 한계와 전망 △불교사상사 연구, 개념과 현실 사이의 잃어버린 접점 등의 연구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함께 배워요

명상심리상담학회·BTN, 12월까지 월례강연회

3월 22일 첫 강연회 시작
스트레스 관련 전문가 강의
인경 스님 명상교육도 함께

현대인의 최대 고민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알아차림 명상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월례 강연이 열린다.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BTN불교TV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월례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 강연회의 특징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심리학적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전문가 강연과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을 익힐 수 있는 교육·시연으로 나눠 진행된다는 점이다.

3월 22일 열리는 첫 강연회에서는 김정호 덕성여대 교수가 스트레스의 이해를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 강연을 하며, 이후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이 알아차림 명상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한다.

총 10강에 거쳐 이뤄지는 월례강연회에는 스트레스 관련 심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주요 강사로는 동방문화원 책임교수 동진 스님, 김상임 블루밍경영연구소 대표코치, 김창중 동양대 교수, 김광호 조우코칭 상담센터장, 김동성 마음텃밭 명상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다. 알아차림 명상 교육은 인경 스님이 담당한다.

강좌는 매 강연 200명 선착순 마감이며 목우선원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홈페이지(medicoun.com)서 접수 할 수 있다.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15,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사전접수할 경우 5천원이 할인된다.

인경 스님은 "경쟁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과 명상을 통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성평등적 불교, 출·재가 인식 개선 우선

주목할 만한 박사 논문 ②

김동윤의 '여성 불자 신행연구'

초기·대승 여성관 분석해
평등·불평등적 요소 살펴
구체적 대안 제시들 '눈길'



불교여성개발원이 개최한 승만보살 10대원정진 100일 회향 수계법회의 모습. 성평등적 불교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에 대한 출·재가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자료 사진

불교 여성관과 재가여성 신행을 분석하고 성평등적 불교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제시를 담은 박사 논문이 발표됐다.

김동윤 박사는 논문 '여성 불자 신행연구'를 통해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서 올해 상반기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초기·대승 경전에 나타난 여성관과 재가 신행을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불교 여성관을 제언했다.

김 박사는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종교이며 그 깨달음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란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근본적으로 붓다의 여성관은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붓다께서 칭찬한 재가 여성도 상당수"라며 "붓다는 재가여성 제자에 대한 그 어떠한 차별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해 불제자다운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불평등적 요소로 지적받는 '비구니 팔경계'에 대해서도 김 박사는 당시 여성 출가를 허용하기 위해 붓다가 제시한 방편이라고 봤다.

김 박사는 "인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소하고 여성들을 승단내로 받아들일 경우에 오는 불교 내외의 파장을 고려해 붓다는 여성의 출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붓다 제세에도 500 비구니가 출가했다. 그들을 경전 결집 때 배제한 것은 제자단의 보수성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비구들만 참석한 경전결집 대회 때에 붓다의 일화 중 여성에 관계되는 것들이나, 비구들의 행적에 대한 부분들이 탈락되었을 것"이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불교 여성관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여성 존중을 위해 출재가 인식 개선과 여성 권익을 위한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김 박사는 제언했다.

김 박사는 "의식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은 출가자나 재가 모두에 대한 '상호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상호 존중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승가대학이나 사찰불교대학 등에서 기본적으로 이수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고성 옥천사 소재 성보들의 특징은

동불연 3월 24일 학술대회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불교문화재들의 특징들을 연구·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고성 옥천사는 3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불교문화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요정 충북대 목재연륜은행 선임연구원의 '연륜연대분석을 통한 옥천사 목조나한상의 제작시기 고찰', 대구 길상사 주지 도해 스님의 '〈옥천사사적기〉 번역과 의미',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고성 옥천사 대웅전 석조불상 연구'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⑤ 사형수 고금석

"짧은 생이지만 불제자로 산 세월 천년 산 보람"

1989년 8월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교수형 집행장에 들어선 박삼중 스님의 합장한 손이 바르르 떨렸다. 사형수 고금석의 사형 집행 현장이었다. 5분간의 인정심문이 끝나자 사형자에 대한 종교 의식에 들어갔다.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얽매임에서 해탈하는 순간을 맞았군요"라고 삼중 스님이 가까스로 입을 뗐다. 그러자 고금석은 "예, 비록 27살 나이로 떠나지만 저의 삶은 여한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고금석은 잔잔한 미소를 띤 편안한 얼굴로 "스님 부디 건강하세요. 안색이 무척 안좋으신데 건강하셔야 좋은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두 사람은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그리고 다시 생각난 듯 고금석은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이 올리던 1천일 기도가 10일 부족하니 스님이 나머지 기도를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사형수는 태연하게 미소 짓고, 스님은 울고… 완전히 위치가 뒤바뀐 셈이 됐다. 의식이 끝난 뒤 그가 도리어 스님을 위로했다. "스님, 죽음은 없다고 가르쳐 주셨죠…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고금석은 교도관들 사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최후를 보인 사형수로로 꼽힌다. 고 씨는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 이는 1986년 서울 강남 조직폭력배 간 다툼으로 8명이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그는 유도대학



삼중 스님의 손에는 아직도 고금석이 만든 염주가 끼워져 있다.

매일 3천배와 참선, 교도소내 '선사'로 불려
영치금 모아 용소분교 어린이 돕는 선행도
삼중스님, 고금석 만든 염주 지금도 손에 차

출신으로 친한 선배들을 쫓아다니다 엉겁결에 싸움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험상궂은 외모나 잔인한 범행수법과 달리 감옥에서는 3년간 매일 3천배와 참선 등을 하며 교도소내에서는 '선사' '스님' 등으로 불렸다. 또한 자신의 영치금을 털어 산골 어린이를 돕는 선행도 베풀었다. 이런 고금석을 삼중 스님은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서일까? 삼중 스님의 손에는 지금도 그가 만들어준 염주가 끼워져 있다. 지금은 오래 돼서 글씨가 닳아서 잘 안보이지만 염주에는 고금석이



1989년 10월 19일 정선 용소분교서 열린 임간교실 '금송정' 준공식서 삼중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송'은 사형수 고금석의 법명이며, 이 임간교실은 그의 영치금을 비롯해 각종 단체서 기탁된 성금을 모아 지어졌다.

평소 좋아하던 경구들이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삼중 스님은 고금석이 사형수로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독실한 불자로 어려운 재소자를 도와가며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는 것이다. 삼중 스님은 "지금까지도 여생을 이렇게 보낸 사형수는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죄를 받아들였고, 사소해도 타인을 위한 일이라면 스스로 나서고 나누고 싶어했다"고 회고했다.

고금석은 교정시설 밖에서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 동료 사형수가 후원하던 강원도 오지인 정선의 용소분교를 이어받아 정성을 쏟으며 죽기 직전까지 후원했다. 어느 날, 고금석의 신분을 모르는 한 학생이 "탄광촌에 살아서 저는 푸른 바다에 가 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라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고금석은 그 꿈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영치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사형 집행이 수시로 있던 시기였다.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고금석은 펑펑 슬피 울었다고 한다. 삼중 스님은 눈물 흘리는 그 앞에서 "내가 대신 아이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를 위로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산으로 아이들 물놀이 행사를 준비 하던 스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1989년 8월 4일 고금석의 사형을 집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사형수들을 만난 삼중 스님이지만 고금석의 사형 집행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다. 평생 처음 취할 만큼 술을 마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봐야 했기에 사형 집행장을 찾았지만 결국 삼중 스님은 평정을 찾지 못했고, 그의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오히려 스님을 위로한 것은 사형수 고금석이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 직전 그는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스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스님의 지병이라도 제가 갖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웃어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사형이 집행된 지 열흘 뒤, 강원도 오지 아이들의 부산 바다 여행이 성사됐다. 고금석은 전 재산 20만 원을 학교에 남겼고, 강원도 용소분교에는 각종 단체서 기탁된 성금을 모아 그의 법명인 '금송'을 딴 야외 임간(林間)교실이 지어졌다.

용소분교는 학생수 감소로 2008년 통폐합돼 없어졌지만, 아이들을 사랑한 사형수 고금석이 강원도 산골벽지에 뿌린 진정한 참회의 의미는 오래토록 회자될 것 같다.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⑤ 성수 스님 · 여래심 보살

어느 날, 직지사, 청암사, 황대선원을 정하고 순례길에 나섰다. 서울에서 거리가 있는 관계로 황대선원은 30분을 정하고 스님을 뵈었다. 짧은 시간에 스님께서는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셨다. 도(道)라 하면 무슨 요술이나 마술로 오해하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벗어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손에게 자신의 일생을 둘러보아 부끄럼이 없는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도(道)라고 말씀해 주셨다. 말씀 말미에는 보살은 배고픈 중생들을 보면 "야, 이놈아! 젖이나 한통 먹어라!"하며 보듬어 주는 보살이 되라고 한 말씀을 얹어주셨다. 그리고 동행한 아들에게 언제까지 엄마 뒤를 따라 다닐거냐며 다음은 혼자 오라고 일갈하셨다.

여래심 보살은 같은 절에서 같은 날 불명을 받고 30여 년간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고 있는 도반이다. 하루는 자신이 오기살이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오기를 안 부리면 된다고 무심코 한 말이 대답이 되었다. 글을 연재하는 내내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쪽지 한 장을 보내와 지면에 싣고자 한다.

'보살님 훌륭하신 글 감동으로 읽었습니다. 지난 세월 흔적 동행하며 공부했던 추억들을 신문을 통해 불자들에게 포교하시는 모습 자랑스럽습니다. 여여원 공부는 평생 잊지 못할 정진이었고 전생, 금생 업을 녹이는 가르침을 배워 지금도 그 힘을 얻은 가피로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보살님 인연으로 긴 세월 공부한 여여원 도반 모두 부처님 가피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보살님께 삼배 합장 드리며 보살님 자랑스럽습니다. 여래심 드림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반 야 용 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